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의 사진

VOL. 549

한국사진 년

www.pask.net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vol. 549 April 2026.4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사진협회 사진회가 펴내



4 2026
April

제44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전시 및 시상식

【전시기간】 2026. 6. 6(토) ~ 6. 28(일)

【전시장소】 공모부문. 동강사진박물관, 추천부문. 영월문화예술회관
(단, 월요일 휴관)

【개전 및 시상일시】 2026. 6. 13(토)

【시상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강당 (2026 PASK AWARDS)

Contents

April 2026 Vol.549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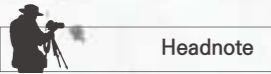


윤기창(포항지부) - 침성대 목련

해마다 피는 꽃이지만
해마다 느낌이 다르다

니콘 D800E
렌즈 70-200mm
1/640 F5.6

- 03 **Headnote**
회원의 활동은 한국사진의 등불입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항룡
- 24 **전시광고**
[한재원 사진전] 무명 깨고 지혜 피어난다
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 - 한재원(전주)
- 28 **전시광고**
[문주철 개인전] 더 높이 더 빠르게
바람을 가르는 눈빛 - 문주철(제주)
- 32 **전시광고**
[임근영 개인전] 고향의 숨결을 담은 예술의 여정
An Artistic Journey Carrying the Breath of My Hometown
- 임근영(화순)
- 36 **전시광고**
[제12회 한국디지털아트 디플렉기전 2026]
바람난 미술_디지털아트를 품다 - 최상귀(서울)
- 40 **전시광고**
[밀양문화관광재단 기획초대전 이상복 사진전] 13년의 시간과 시선
베트남 일상·풍경, 밀양에 오다
Đời sống và phong cảnh Việt Nam tại Miryang - 이상복(밀양)
- 44 **전시광고**
[박영숙 개인전] 우리 살처럼 어울더울
흐르고 얽히다 - 박영숙(대구)
- 48 **전시광고**
[김영록 사진전] 빛의 궤적 따라 떠오르는 시간의 스펙트럼
THE BLUE - 김영록(대구)
- 54 **지상전 01**
60년 세월 뛰어넘은 맑은 눈동자
사이공의 아이들 - 박제훈(인제) 1969



Headnote

회원의 활동은 한국사진의 등불입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기운이 대지를 감싸는 4월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 자연이 다시 생명의 숨결을 되찾듯,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이 스며드는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사진은 빛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기록이며, 시대를 담아내는 소중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엔 단지 하나의 장면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와 삶의 흔적을 기록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진 한 장 한 장은 결국 우리의 기억이 되고, 우리 사회의 역사로 이어지는 문화적 자산이 됩니다.

우리 협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진예술의 발전과 사진문화의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묵묵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전시와 촬영회, 공모전은 물론 협회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활발한 교류와 배움의 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 사진예술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진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협회의 위상을 빛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진예술이 우리 사회 속에서 더욱 의미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세대와 지역을 넘어 사진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배우는 장을 마련하여 한국 사진문화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열어가겠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 속에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카메라에 담기는 한 장 한 장의 기록이 우리 시대의 풍경이 되고, 그 빛과 시간이 한국 사진문화의 깊이를 더욱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항룡

Contents

April 2026 Vol.549



58



66



80

- 58 **Photo Essay 01**
영원한 순환, 빈자리에 또 다시 피어나라
'생과 滅' 그 찬란한 공존 - 이호범(대전)
- 62 **지상전 02**
머물러 바라보고픈 고원의 이상향
상그릴라 - 은호진(고양)
- 66 **Photo Essay 02**
6.25때 한국 도운 나라, 그 곳은 지금
사람 IN 에디오피아 - 한상훈(부산)

사진강좌

- 70 **Review & Preview**
한국사진 '기록에서 예술로' 그 귀적 한눈에...
前後의 시선 : 동강사진박물관 20년 특별전 - 김재훈
- 76 **Travel destination**
네안데르탈르인의 유전자 말한다
4만 년 전, 전쟁과 사랑의 흔적 - 최승언
- 80 **Photo Theory**
모방과 창조로 보는 정물사진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시간 - 여상현

협회소식

- 86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협회소식, 회원동정

연계소식

- 101 **Gallery**
김영록 사진전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ID : kpsk / PW : kpsk



한국사진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sk / PW : kpsk
펴낸날 | 2026년 4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운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정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향릉_그들만의 버스킹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작



(입회점수 있음) **제44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접수기간】 2026. 4. 21(화) ~ 22(수)

【접수시간】 10:00~18:00 도착분

- 출품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유해하지 않는 국내외 발표되지 않은 사진작품
- 출 품 료 : 1인당 공모전 부문 90,000원 / 추천작가 부문 90,000원(작품집 포함)
- 작품규격 : 공모전 부문 / 추천작가 부문
 - 1) 공 모 전 부문 : 작품은 간변 기준 50cm ~ 77cm 사이의 규격으로 인화하여 대지(우드락) 부착하여 제출. (단, 대지(우드락) 포함 90cm를 초과할 수 없음)
 - 2) 추천작가 부문 : 11" x 14" 인화지 작품(우드락 미부착) 1점을 출품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미발표작에 한함)
 - 3) 공통사항 : 작품과 동일한 내용의 8" x 10" 인화지 작품을 출품원서와 함께 제출요망.
 - 4) 원서기입 제출시 필히 필수기재 항목을 모두 기입 후 제출요망.
 - 5) 공모전 분야 출품시 작품에 해당되는 부문별 분야를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 원서배부일 : 2026년 3월 예정 ~ 접수일까지
- 원서배부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다온 활용, 지회·지부, 주요현상소 등
-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본 협회 교육홀
- 심사일시 : 2026년 4월 24일(금)
- 심사장소 : 추후공지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결과발표 : 2026년 4월 중

시상 내역

대 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훈장형 상패
최우수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및 훈장형 상패
우 수 상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및 훈장형 상패
특 선 (수상작품의 10% 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훈장형 상패
입 선 (출품작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추천작품상 3점 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훈장형 상패

※ 작품반출

- 심사발표 후 낙선작 반출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10일 이내 반출 가능.
- 반출방법 : 소속 해당 지회(광역시, 도지회), 직접수령, 폐기만 진행 예정(포장 및 택배비 부과 될 수 있음. 단, 출품시 접수한 8" x 10" 인화지는 반출처리 하지 않음)
- 기간 내 미수령시 폐기처리 됨.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작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의 책임지지 않음)

※ 기타유의사항

- 수상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영화과 영상예술특기자 사진부문)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 사용권을 통해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 문의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02-2655-313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6 제5회 통영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미륵산에서 본 한산만 일출 / 진달래 핀 미륵산 / 통영 케이블카



접수기간 2026. 4. 6.(월) ~ 11. 30.(월) 11:00, 8개월 간

출품자격 제한 없음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부여

공모내용

- 통영 주요 관광지를 소재로 한 미발표 작품 (2026년 1월 이후 촬영작)
- 통영관광개발공사 주요 관광시설 (통영케이블카, 디피랑, 어드벤처타워, 수산과학관 등)
- 통영 명소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관
- 활기찬 통영의 축제 사진 (한산대첩축제, 벚꽃축제, 레저스포츠 등)
-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특별한 장소 등

응모요강

- 작품활용: 수상자 전원 작품집 제작·배포 및 전시작품으로 활용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시 홍보자료 활용
- 작품규격: 칼라 또는 흑백사진
드론사진 가능 (촬영허가증 제출)
- 접수기간: 2026. 4. 6.(월) ~ 11. 30.(월) 11:00, 8개월 간
- 접수방법: 네이버폼 제출 (사진용량 5MB 이상)
<https://naver.me/FgEz0vC5> (QR코드 접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제출
-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출품료 없음)
- 문 의 처: 통영관광개발공사 기획혁신실
☎ 055-640-2813~4
한국사진작가협회 통영지부
지부장 ☎ 010-4919-4077
사무국장 ☎ 010-5517-0252

심사발표 및 시상

- 심사일자: 2026년 12월 중
- 심사장소: 통영시청 대강당
- 심사발표: 2026. 12. 11.(금)
통영관광개발공사 및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발표 예정
- 시상 및 전시일정: 2026. 12. 20.(일) ~ 31.(목)

시상내역 (총 상금 1,040만원) ※ 원천징수 공제 후 지급

| 구분 | 시상내역 |
|--------|---------------------------|
| 금상 1점 | 통영시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 은상 2점 | 통영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70만원 |
| 동상 3점 | 통영관광개발공사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 가작 5점 | 통영관광개발공사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 입선 40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지부장상 및 상금 각 10만원 |

※ 수상자는 시상식 때 의무참석(대리참석 가능)

유의사항

- 입상·입선작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서류 제출 (원본파일 및 통장사본)
- 수상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홍보목적 으로 활용 (단, 저작권은 7년간 유효함)
- 출품작의 초상권 및 저작권 관련 분쟁은 출품자 책임
-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 공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공모전에서 동일작 및 유사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조치하며 비회원은 입회를 7년간 유보함

제5회 장노출 전국 사진대전



장노출 사진 예술의 발전과 사진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요강

-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장노출(30초 이상)로 촬영한 미발표 작품
- 작품규격: 11"x14"(흑백 및 컬러)
- 출품요령: 화제 · 촬영장소 · 노출시간 · 이름 · 주소 · 연락처 기입
- 출 품 료: 1인당 3만원(4점 이내)
- 접수마감: 2026년 4월 30일 도착분까지
- 출 품 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75번지 한국예총 증평지회
- 심사일시: 2026년 5월 3일 예정
- 심사발표: 한국사협 및 사협증평지부 홈페이지 www.paskjp.kr

* 시상내역

- 대 상 1점: 증평군수 상장 및 벤로 TMA 48cxl 카본 삼각대(80만원 상당)
- 최우수상 1점: 증평군의회장 상장 및 벤로 TMA 48cxl 카본 삼각대(80만원 상당)
- 우 수 상 2점: 증평예총회장 상장 및 벤로 TMT4 44C 카본 삼각대(54만원 상당)
- 특 선: 입상작의 10% 이내 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및 벤로 자석필터 ND1000 또는 64 1개(12만원 상당)
- 입 선: 출품수의 20% 이내 선정, 입상작 포함 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상장
- 초대작가상: 자석 브라이언 CPL

시상전시 증평 문화원 갤러리

* 초대작가제도

대상 5점, 최우수상·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 총 15점 이상일 때는 초대작가로 추대하여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초대작가증을 부여하고, 본 사진대전 심사자로 위촉할 수 있음
구비서류: 사진대전(초대작가)지정 신청서 1부,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상장 복사본, 명함사진 2매

* 유의사항

- 입선·입상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선·입상될 경우 상권이 취소
- 시로 만든 사진작품은 불허함(원본 제출시 시로 작품화된것이 발각 되면 상권취소)
※사협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한국사협 입회 유보
- 입상·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 입상·입선 작품은 발표 후 5일 이내 jppask@naver.com 로 이미지 파일 제출
-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은 행사 발표 후 7일 이내 작품규격 16"x 20"로 인화하여 제출
- 접수문의: 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 증평지회

2026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 **대회일시** 5월 9일(토) 오전 9시30분 (우천불구)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회장소**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시 중구 퇴계로 34길 28)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3,4호선 충무로역 4번출구

공모 요강

대회일시 2026년 5월 9일(토) 오전9시30분 (우천불구)

대회장소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시 중구 퇴계로 34길 28)

참가비 30,000원

참가자격 전국 모든 사진애호가 (핸드폰 촬영사진 포함)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및 당일접수

출품내용 대회당일 모델 중심으로 촬영한 내용 (식전행사 포함)

작품규격 11"X 14" 컬러 및 흑백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출품방법 출품표에 성명, 작품명, 연락처, 주소를 기입후 작품 뒷면에 부착 (복사 사용 가능)

접수마감 2026년 6월 26일(금) 도착분

접수처 (07995)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층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화문의 02-2665-3131~3

시상 내역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시상품

은상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시상품

동상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시상품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장려상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출품작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우수촬영지도위원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은백지

심사 및 전시

심사일시 7월 8일(수)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 될수있음)

심사장소 추후 공지

심사발표 7월 10일(금)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시 www.pask.net

전시 및 시상식 추후 공지

기타(유의사항)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수상작의 저작권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주최 측은 전시 및 홍보 등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합성 및 작품 테두리를 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함
- 대회당일 작품이 아닌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시 상권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 유보됨
- 입상자(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는 필히 시상식에 참석 (대리참석 가능)
- 출품된 모든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촬영대회 당일 경품추첨

주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창작사진분과위원회

2026안동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입회점수 없음

2026. 5. 1. (금) ~ 5. 5. (화) | 축제 기간 중 촬영
중앙선1942(구 안동역), 탈춤공원 일대

작품내용 행사 기간 중 각종 행사 장면 등을 촬영한 작품

- **출품자격:** 내외국인 누구나(휴대폰 사진도 규격에 맞는 경우 가능)
- **출품 규격:** 컬러 및 흑백 파일제출(장변 3,000pixels이상 해상도300dpi 이상의 JPG파일)
- **출품료 및 출품 수:** 출품료 없음 1인 3점 이내
- **출품요령**
출품 시 출품표를 별도 다운받아 작성 후 사진 파일과 함께 제출(한글파일로 작성)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양식다운로드(www.adcc.or.kr) → 열린마당 → 문화원 새소식
- **접수처:** 미성사우회 사무국장 메일로 접수(dhyun1545@daum.net)
- **접수마감:** 2026년 5월 20일(수) 18:00 마감
- **심사:** 2026년 5월 26일(수) 10:00
- **발표:** 2026년 5월 27일(목), 안동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고

※ 입상·입선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미성사우회 사무국장 메일로 제출

시상내용

| | |
|--------|----------------|
| 금상 1점 | 작품매입대금 1,000천원 |
| 은상 2점 | 작품매입대금 각 300천원 |
| 동상 3점 | 작품매입대금 각 200천원 |
| 가작 3점 | 작품매입대금 각 100천원 |
| 입선 40점 | 작품매입대금 각 50천원 |

기타

- 출품된 파일은 입상·입선작을 제외하고 심사 후 즉시 폐기 함, 홍보 및 공익적 목적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전시, 2차 저작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안동문화원에 위임하는 조건으로 출품
- 입상·입선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미성사우회 사무국장 메일로 제출
- 기 발표된 작품이거나 유사작 및 동일작은 출품하여 입상·입선 할 경우 상권이 취소됨
- 작품 제출 시 과도한 포토샵, Si를 활용하여 합성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심사 후에도 위 사실이 발견될 시 상권은 취소 됨
- 초상권에 대하여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미성사우회 회장(010-3824-4564, 사무국장(010-3522-3742)문의 바람

"축제의 모든 순간" 당신의 한 컷이,
축제를 완성합니다.

차전놀이, 뚝다리밟기, 대동놀이
길놀이 퍼레이드 및 시민참여 장면
어드벤처 체험존 및 축제 체험 프로그램
저잣거리 주막 및 먹거리 마당
축제의 역동성과 참여와 감동의 순간



주최 | 안동문화원 주관 | 미성사우회

· 제30대 우수찬 이사장 4,000만원 기탁 · 심재안 위원장 2,000만원 기탁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훈 서울지회 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윤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2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레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송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중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오만태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흥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종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현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팔영 광주지회 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차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2024년 장학금 지급 2,400만원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150만원
박헌재 자문위원 100만원
반봉현 자문위원 100만원
조병두 자문위원 100만원
서성강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은효진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김남규 자문위원 50만원
신성우 자문위원 50만원
이종근 자문위원 5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윤상섭 자문위원 50만원
김동민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완기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박용덕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달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윤식 자문위원 30만원
신우식 자문위원 30만원
안판중 자문위원 30만원
양범석 자문위원 30만원
오상석 자문위원 30만원
임계환 자문위원 30만원
홍성광 자문위원 30만원
김경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삼경 자문위원 20만원
김석원 자문위원 20만원
김은근 자문위원 20만원
김중호 자문위원 20만원
박국인 자문위원 20만원
박충수 자문위원 20만원
배원태 자문위원 20만원
오정균 자문위원 20만원
윤석환 자문위원 20만원

이명환 자문위원 20만원
정두원 자문위원 20만원
정해선 자문위원 20만원
조용진 자문위원 20만원
최갑수 자문위원 20만원

■ 2025년 장학금 기탁
강도영 이사 30만원
강경희 자문위원 30만원
박해섭 이사 50만원
민웅기 이사 30만원
산악사진분과위원회 50만원
양성근 니주지부장 20만원
하병걸 이사 50만원
이창훈 이사 30만원
김종호 고문 20만원
박인호 이사 30만원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50만원
한용상 이사 30만원
전영복 자문위원 20만원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100만원
서산지부 20만원
한병률 운영자문위원 20만원
박노성 운영자문위원 20만원
김복순 이사 100만원
김효숙 자문위원 30만원
황진이 군포감사 50만원
오기종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송파구지부 200만원
이연숙 이사 200만원
권경애 환경분과위원장 30만원
이기준 서산지부 20만원
장흥근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2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전태만 울산지회장 20만원
강우순 울산부지회장 1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사무국장 10만원
최진양 울산홍보간사 10만원
안광수 춘천예총회장 20만원
드론사진분과 100만원
박윤창 자문위원 100만원
박성혁 대구지회 회원 300만원
임성동 이사 50만원
조치호 강남지부장 30만원
학술평론분과 100만원
박병철 정읍지부 회원 100만원
양경향 자문위원 1,000만원
김시묵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김삼택 이사 3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최근태 이사(공주지부장) 100만원
이해경 공주지부 사무국장 30만원
조은자 공주지부 재무간사 30만원
이창선 공주지부 회원 3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전태만 이사 100만원
임성동 이사 100만원
전태국 안동지부장 50만원
최덕환 익산지부 회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김정희 안동지부 회원 2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우숙자 이사 20만원
이경래 본부감사 10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20만원
김영록 이사 30만원
오명숙 이사 3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배경희 천안지부 회원 10만원
윤보상 이사 100만원
김명옥 이사 30만원
김문호 이사 30만원
조성근 자문위원 20만원
박순정 대외협력부위원장 100만원
오만태 이사 100만원
오재용 광주지회 회원 500만원
임혜숙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김홍찬 대전지회 회원 20만원
황일영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300만원
신명현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윤지한 인천지회 회원 2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정연수 이사 100만원
국향숙 양천구지부 사무국장 10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백송의 장학위원회 감사 150만원
박옥렬 강릉지부장 2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70만원
최연근 이사 200만원
황길연 이사 100만원
윤기옥 은평구지부 회원 500만원
윤판문 광주지회장 5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회원 20만원
박건태 이사 30만원
이옥진 다큐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정재문 이사 50만원
손홍현 광주지회 회원 30만원
황치길 자문위원 30만원
김경복 서울지회 회원 50만원
최경순 하남지부장 3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 100만원
장준복 스포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기복 수원지부 회원 20만원
염미영 수원지부 회원 10만원
최현동 광주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이재규 증평지부장 50만원
누드사진분과위원회 30만원
이종석 이사 50만원
한현정 홍성지부 회원 20만원
조길호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장현중 여수지부장 30만원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사진예술의 미래를 밝히고, 젊은 인재들이 창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사진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이에 협회는 장학재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기금 모금에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성도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미래 사진예술을 이끌어갈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재안

장학기금 모금계좌, 국민은행 293201-04-258248 (사)한국사진작가협회

2026년 3월 1일 기준

신용식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위성터지부 60만원
이종면 영동포구지부 회원 10만원
정금화 강동구지부 회원 100만원
이윤순 이사 100만원
석도상 산청지부장 50만원
강신재 자문위원 10만원
이애영 종량예총회장 100만원
채석근 특수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조선일 인천지회장 20만원
신명현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10만원
어재선 평창지부 사무국장 10만원
김대중 청주지부장 20만원
최영근 당진지부장 30만원
의왕지부 100만원
손영자 동작구지부 회원 30만원
구미숙 양천구지부 회원 100만원
장영길 자문위원 100만원
서산지부 일동 310만원
정강주 춘천지부장 10만원
김희섭 구리지부 회원 10만원
최태용 자문위원 30만원
정영섭 양평지부 회원 10만원
선종백 부이사장 100만원
송구진 전주지부 감사 50만원
김호경 동작구지부 회원 10만원
이윤순 충주지부 회원 50만원
이호규 대구지회 지회장 30만원

김오환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박헌숙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배영희 대구지회 사무국장 10만원
김문영 대구지회 사무차장 10만원
김춘도 이사 30만원
김철수 이사 30만원
고미선 여주지부 회원 10만원
이상영 이사 100만원
박용덕 구미지부 회원 100만원
이승모 금산지부 부지부장 10만원
김종철 금산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오원석 대전지회 감사 30만원
진광준 구미지부 부지부장 30만원
박영숙 대구지회 회원 30만원
김정인 송파구지부 회원 100만원
백송의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100만원
오문자 성남지부 회원 200만원
오성조 자문위원 50만원
김광재 활영지도위원 사무국장 10만원
박석관 이사 50만원
정건영 자문위원 100만원
박만석 이사 100만원
신영식 광양지부 지부장 10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300만원
신원호 순천지부 간사 30만원
홍종복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2025년 장학금 지급 3,100만원
오길준 순천지부 회원 30만원

■ 2026년 장학금 기탁
장일미 평택지부장 400만원
고양지부 일동 50만원
김정희 순천지부 간사 30만원
손석윤 이사 150만원
정봉주 평창지부장 30만원
고성상 평창지부 회원 10만원
김도운 평창지부지부장 10만원
반순화 평창지부 간사 10만원
황영구 포항지부장 10만원
박상화 포항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양승옥 장수지부장 50만원
최원준 제천지부 회원 30만원
김정인 송파구지부 회원 100만원
조영호 부여지부장 10만원
조남길 부여지부 부지부장 10만원
한상현 부여지부 감사 10만원
장주현 부여지부 감사 10만원
조주희 부여지부 간사 10만원
이동수 부여지부 간사 10만원
김영미 부여지부 간사 10만원
박상우 부여지부 간사 10만원
김용태 부여지부 간사 10만원
천순희 부여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윤준웅 자문위원 10만원
김건수 자문위원 10만원
김양환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장계성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전영호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김병철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박정철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박인식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이만형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서장원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김영국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이기동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이충선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임춘순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김연미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전홍규 부여지부 회원 10만원
이기복 드론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염미영 수원지부 회원 10만원
이희수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1000만원
오원석 대전지회 감사 10만원
한본조 구로구지부 회원 30만원
황말남 과천시지부 회원 30만원
방성공 청주지부 감사 10만원
신경애 이사 100만원
배정옥 의정부지부 회원 20만원

현재 잔액 340,050,418원

Haida

렌즈의 AF 장치에 영향을 최소화한 적절한 자력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ND 8, 16, 32, 64, 1000, CPL, 그라데이션 등
촬영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 선택 가능



카메라 렌즈 클리닝 키트
CAMERA & LENS CLEANING KIT

블로어, 극세사, 청소용 붓, 펜슬, 센서
청소도구 등 필요한 모든 청소도구를
담은 카메라와 렌즈 클리닝 키트



마그네틱 컨버전 어댑터링
MAGNETIC CONVERSION ADAPTER RING

일반 원형 필터를 마그네틱 필터로 변환
하는 어댑터링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필터를 마그네틱으로
활용해 보세요



결로방지 렌즈히터
LENS HEATER

렌즈와 카메라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추운 곳에서도 결로를 막고
카메라가 얼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



렌즈용 극세사 매직 랩
CAMERA & LENS CLEANING KIT

렌즈, 카메라를 보호하는 극세사 랩
벨크로처럼 접착 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SUNWAYFOTO®

포토클램이 수입하는 믿을 수 있는 촬영장비



SUNWAYFOTO
GH-RPO+

파노라마 · 랜드스케이프 · 정물사진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기어헤드

선웨이 포토의 GH-PRO+는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3-WAY 기어헤드입니다.
플레이트 클램프 부분에 파노라마 베이스가 추가되어 여러장의 사진을 합치는
촬영에서 수평을 맞추기에 용이합니다. 고급 황동 소재를 사용해 기어의 작동이
부드럽고 정교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BENRO®

자석 필터의 탑클래스



강력한 자력



완벽한 IR-CUT



나노코팅 발수, 발유



벤로자석필터 82mm 고급형 A키트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Lexar 30TH

렉사 30주년

챔피언이 선택한 메모리 브랜드



렉사 공식수입원 (주)벤로코리아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글로벌 파트너

구입 및 대리점 문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빌딩 1호별관 2층 (주)벤로코리아 www.benrokorea.co.kr

02-775-6681

BENRO

CYAN BIRD [MAX]

사진용 여행용 삼각대 **벤로 사이언버드 맥스**

휴대성과 안정적인 20kg 페이로드

20KG
페이로드

36mm대형 볼 직경



BALL + Low Profile

볼 + 역방향 로우 프로파일

CARBONE LEG

강도, 진동흡수 카본재질 레그

47.3 cm FOLD

접었을 때 높이 47.3cm

156 cm HIGH

최대높이 156cm

20 kg PAYLOAD

페이로드 20kg

사진여행의 시작

포토투어가 작가 여러분의 특별한 사진여행을 안내합니다. 감동과 추억이 간직되는 여행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 1월 - 중국 황산 촬영, 일본 비에이 촬영
- 일본 장노출 촬영(이세만)
- 2월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로라 촬영
- 일본 비에이 유빙 & 단정화 촬영
- 3월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일본 복사꽃 & 장노출 촬영
- 4월 - 스코틀랜드 & 네덜란드 촬영
- 체코 남모라비 봄 촬영
- 5월 - 호주 남부 장노출 촬영, 인도네시아 장노출 촬영(툽복외)
- 6월 - 이탈리아 돌로미티, 베트남 무강차이 다락논 촬영
- 7월 - 아이슬란드 백야 촬영 여행
- 필리핀 블루라군 촬영
- 8월 - 뉴질랜드 장노출, 스코틀랜드 여름 촬영
- 9월 - 아이슬란드 가을, 일본 가을 단풍 촬영 여행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촬영(1차)
- 10월 - 베트남 무강차이 가을 촬영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2차), 슬로베니아 가을 촬영 여행
- 11월 - 일본 비에이 촬영, 인도네시아 숨바섬 촬영
- 12월 - 베트남 장노출, 일본 비에이 촬영



PHOTOTOUR



제44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보정, 출력, 접수, 액자제작까지
- 회원전, 축전, 작품전 대행

Artluxe

아트룩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실내, 실외) 자외선/가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 패널 시스템입니다.

ArtPlus

아트플러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한지, 페브릭, 파인아트, 캔버스는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작품을
재현하는 매력적인 원목프레임으로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출력 전시계획-한지·페브릭·캔버스출력

PNP아트룩스™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GOLD 골드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SUREVUE 슈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PEBR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 아트룩스 유사상호, 출력필름 합성지, 중국산 필름 사용 등
불량제품 피해 주의바람.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국내유일 국산 아트페블릭인화지 원목입체액자

국내유일(독점) 국산아트페블릭인화지 사용, 인화품질 결과물 타업체와 비교 후 선택하세요.



생생한 느낌!
살아있는 질감!
놀라운 입체감!



자세한 사양 보러가기

프리미엄 아트페블릭아트랩 원목입체액자 (우드, 화이트, 블랙) 국내산 아트페블릭인화지만 사용합니다.

장섬유인 닥나무 운동을 그대로! 소프트한 설경한지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닥운동 설경한지 한지인화 두진만의 프로파일 적용 미세한 디테일 까지...



설경한지랩 입체액자

닥운동 설경한지 한지랩 원목입체액자 (우드, 화이트, 블랙)
국내산 전주 설경한지만을 사용합니다.

설경한지 한지랩



사진축전 바로가기



한지액자 바로가기

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두진액자 바로가기



두진아트 바로가기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국내유일 국산 아트페블릭인화지 사용, 인화품질 결과물 타업체와 비교 후 선택하세요.

PS: 중국산저가아트페블릭인화지 국내 "유통경보"인화지의 질이 다르다 (중국산과는 인화품질 비교불가)
업체에 인화작업전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확인 및 검증 후 작업하세요?

100년의 보존가치. 엄선된 품질관리 두진에서 만나보세요.



띄움&올림 액자 뒷면



띄움&올림 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디아섹 뒷면



독일제무반사 디아섹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 사이즈 (3R, 4R, 5R, 6R, 8R, 11R)



액자보러가기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공모전 부문 작품 제작



아직 주문 전이신가요?

편리하게 아트레에서 주문해보세요!



제 44 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접수대행

정성들여 찍은 작품, 접수까지 완벽하게!

전화 한번으로 간편하게
촬영에만 집중하세요

전화
문의

웹하드
접수

접수
완료

[한재원 사진전] 무명 깨고 지혜 피어난다 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

한재원(전주)



©한재원_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

1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5월 6일(수) - 5월 16일(토)
전시장소 전주 한벽문화관 전시실(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동로 20)
개 전 식 2026년 5월 7일(목) 오후3시

2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5월 17일(일) - 5월 25일(월)
전시장소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
만로 255-16)



©한재원_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



©한재원_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



©한재원_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



©한재원_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



©한재원_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

백련지는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 여산법진(송광사 주지)



©한재원_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

연지는 단지 물 위에 피어난 꽃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 잎의 연잎이 펼쳐지고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은 곧 무명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는 수행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사계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연지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생명의 이치를 고요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의 연둣빛 잎은 막 일어난 발심의 마음과 같고 여름의 만개한 연꽃은 깨달음의 환희를 상징합니다. 가을의 스러짐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흩어짐을 보여주며 겨울의 황량한 연지는 오히려 텅 빈 자리에서 드러나는 본래 청정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연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 존재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꽃으로 드러납니다.

사진 속에 담긴 연잎 하나, 마른 줄기 하나에도 깊은 선의 숨결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떠난 가르침이며 형상을 빌린 무언의 법문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고요 속에서 진실을 만나게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연지의 사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피고 지는 모든 순간이 곧 도(道)이며 텅 빈 자리 또한 총명한 진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시광고



©문주철_바람을 가르는 눈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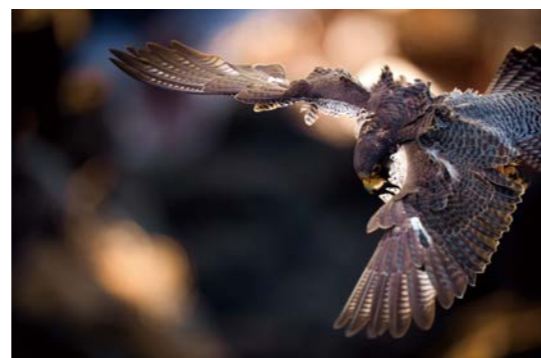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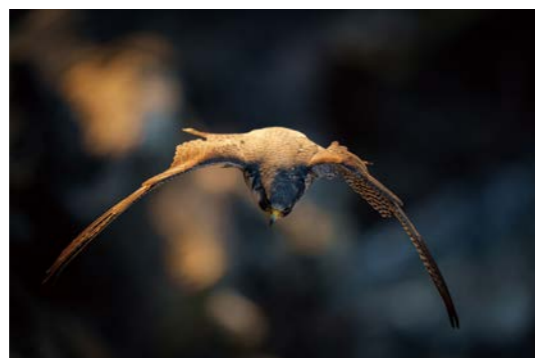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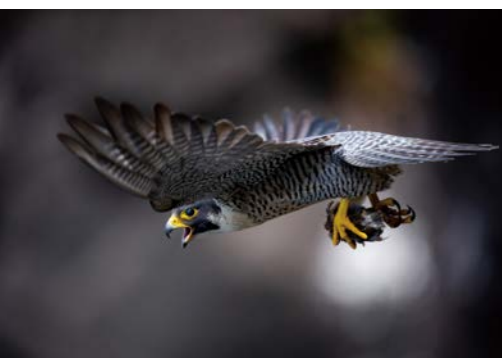


©문주철_바람을 가르는 눈빛

[문주철 개인전] 더 높이 더 빠르게 바람을 가르는 눈빛

문 주 철(제주)

전시일시 2026년 5월 6일(수) ~ 5월 12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0길 11-4(관훈동 30-1)]
전시작가 문주철(010-3885-0940)



©문주철_바람을 가르는 눈빛



©문주철_바람을 가르는 눈빛



©문주철_바람을 가르는 눈빛

하늘을 지배하는 날갯짓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강한 눈빛,
유연하게 바람을 타는 생명체는 늘 나를 매료케했다.

사진을 시작한 지 어느덧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시간동안 카메라를 들고 자연을 찾아 산과 들을 다니며 수많은 순간들을 기록해 왔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사로잡은 존재는 바로 매였다.

매는 언제나 하늘의 지배자처럼 느껴졌다. 높은 하늘을 가르며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 바람을 타고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는 날갯짓, 그리고 사냥의 순간을 노리는 날카로운 눈빛까지. 그 모든 순간에는 자연이 지닌 긴장감과 생명의 강인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나는 그 눈빛과 비상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수 없이 자연을 찾았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길을 나서기도 했고, 매가 나타날지조차 알 수 없는 하늘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기다리기도 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자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나에게 큰 배움이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람을 가르며 나타나는 매의 비상은 그 긴 기다림을 단번에 잊게 만들었다. 목표를 향해 번개처럼 떨어지는 순간, 바람을 가르며 다시 하늘로 치솟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매의 날카로운 눈빛은 늘 나를 압도했다.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셔터를 눌렀고, 그렇게 담긴 장면들은 오랜 시간 자연 속에서 바라보고 기다려 온 나의 기록이 되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매의 눈빛 속에서 자연의 힘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자연 속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기다리며 담아온 나의 기록이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문주철_바람을 가르는 눈빛



©문주철_바람을 가르는 눈빛

[임근영 개인전]

고향의 숨결을 담은 예술의 여정

An Artistic Journey Carrying the Breath of My Hometown

임근영(화순)

일흔의 나이에 이르러 나는 다시 고향 전남 화순을 바라본다. 화순 13개 읍·면의 전경을 중심으로, 그 땅의 자연과 사람을 소재로 한 사진들을 모아 이번 개인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간 날 때마다 전국을 다니며 기록한 풍경과 인물 작품 또한 함께 전시하여, 나의 지난 세월과 시선을 한자리에 담아내고자 한다.

고향의 산과 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그 안의 시간은 쉽게 흐르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걷히는 들녘, 노을이 내려앉은 산자락, 계절에 따라 빛의 결을 달리하는 강과 숲은 나에게 깊은 사유의 시간을 허락하였다. 나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면을 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축적된 기억과 정서를 기록하고자 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촬영한 풍경과 인물 사진 또한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지역은 달라도 삶의 모습은 서로 닮아 있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큰 울림을 주었다. 사진은 순간을 포착

하는 예술이지만, 나에게게는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는 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오랜 시간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촬영을 위해 길을 나설 때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고,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준 이들의 존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일흔이라는 시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한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나는 빛과 사람, 그리고 고향의 숨결을 따라 걸으며 삶의 소중한 장면들을 기록해 나가고자 한다. 이번 개인전이 나의 감사와 다짐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전시일시 2026년 4월 11일(토) ~ 4월 18일(토)
전시장소 어울림센터 갤러리 1F (전남 화순군 화순읍 총의로40)
개 전 식 2026년 4월 11일(토) 오후3시
전시작가 임근영(010-5609-2122)



©임근영_무등산 서석대 설경



©임근영_춘양면 전경



©임근영_화순읍의 거울



©임근영_백야 구름다리



©임근영_전남대 화순병원

나이 일흔에 바라본 고향산천은 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된다.
그것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고 그 풍광에 켜켜이 쌓은 기억과 정서를 터치해 오기 때문이다.

©임근영_규봉암



©임근영_세랑지의 거울



[제12회 한국디지털아트 디플링기전 2026]
바람난 미술 - 디지털아트를 품다

최상귀(서울)

클 최상귀(사문위원, 한국디지털연구소 대표)



©강미순-고요한 위로



©은영옥-꽃길



©국향숙-겨울소경



©윤홍선-서원의 봄



©백진현-고래



©강성휘-Fantastic



©권무덕-고향생각



©강옥순-popart



©김용순-사랑이 밀려올 때



©이숙현-울엄니



©권미숙-히늘위의 집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아트는 새로운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기에 AI는 이제 창작 파트너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조월신-산수화



©오건호-그시절

전시일시 2026년 5월 1일(금) ~ 5월 6일(수)
 전시장소 혜화아트센터 1층 전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개 전 식 2026년 5월 2일(토) 오후 5시
 참여작가 최임순(회장) 강미순 강성휘 강옥순 국향숙 권무덕 권미숙
 김용순 김혜경 박지선 백승의 백진현 오건호 윤홍선 은영옥
 이병화 이숙현 조영옥 조월신 지 혁 최상귀 최혜순 홍종혜
 관람 및 회원가입 문의 최상귀(010-8138-3000)



©홍중혜-유토피아



©최임순-해심



©백승의-바다의 노래

Digital ART+AI

디지털아트(Digital Art)는 컴퓨터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예술을 말하며 현대예술 장르로 빠르게 변화를 했고, 글로벌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아트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예술가와 시가 협업해 새로운 차원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가 생성한 이미지를 화면위에서 가공하거나 탐구하고, 창조하며, 디지털적인 생각으로 작품을 다듬고, 만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디지털아트의 전망은 예술의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들면, 디지털 작품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서 수의 창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NFT 및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 사진과 회화의 융합, 그리고, 창작의 방식 자체를 혁신으로 등장한 AI 생성예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공유 가능한 접근성, 교육과 협업 환경의 발전으로 예술 교육도 디지털화되며 협업도 가능해졌다.

포토샵(Adobe Photoshop), 프로크리에이트(Procreate) 같은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 사진을 리터칭 작업하여 디지털 회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실제 회화를 촬영하거나 스캔 후, 디지털에서 재구성이 가능하고, AI를 이용하여 작가의 감성과 능력에 따라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어 줄 수 있다. 회화를 디지털화하여 사진과 겹치는 혼합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새로운 융합예술로 변화 및 재해석이 가능하다.

최상귀(Choi, Sangkw)는 30여년 동안 포토샵(Adobe Photoshop)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왔다. 현재 포토샵이 업데이트 되어 AI 생성툴

을 사용할 수 있어서 수년전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또한, Firefly, Gemini, ChatGPT 등, 앱들도 이용하고 있으며, AI 스타일 기술을 활용하여 사진, 회화, 디지털아트 등의 구성요소를 혼합하고, 자신만의 시각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사진과 회화 디지털아트의 창작 방식과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과거의 디지털아트가 그래픽 툴과 사진 보정, 3D 모델링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모델과 프롬프트 설계 데이터구축(Prompt Engineering), 첨단 기술에 아이디어를 융합해 포함하는 스타일 트레이닝 까지, 융합창작 시대로 진입했다. AI를 활용한 창작은 단순히 '사진을 만들어 주고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확장 시키고, 새로운 '시각적인 발달'과 '시각언어'를 탐구하고, 기존의 예술과 협력하며, '융합예술'로 이어지며, 디지털아트와 AI는 단순히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제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Artist's Co-creator(아티스트의 '공동 창작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숙명처럼 다가온 AI시대 즈음, Digital Artist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디지털아트 개념확장과 작업과정 등, 이미지 생성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전통적인 회화, 조각 등과 다르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창작하는 것이므로, 컴퓨터, 스마트폰, AI, 태블릿,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고, 이용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AI는 작가가 할 수 없는 감각과 방향성을 제공하고, AI는 이를 시각적으로 실현하는 창조 파트너가 된다. AI는 디지털아티스트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확장된 창작 도구'다. 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의 디지털아트는 AI 이해력 + 예술적 해석력을 갖춘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최상귀-Drawing Spring



©박지선-파래

Digital ART+AI 무료강좌

11차 누구나 참여가능
일시 2026년 6월 15일 14:00(월요일 오후2시)
장소 안양예술인센터(안양 만안구청 옆)

12차 누구나 참여가능
일시 2026년 6월 16일 14:00(화요일 오후2시)
장소 디플(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14길 67 Kodia 한국디지털아트 디플)

회원 모집 중 - 문의 최상귀(010-8138-3000)



©지혁-천계



©최혜순-목련



©이병화-바람



©조영욱-설레임



©김혜경-뿌리내린 기억

[밀양문화관광재단 기획초대전 이상복 사진전] 13년의 시간과 시선

베트남 일상·풍경, 밀양에 오다

Đời sống và phong cảnh Việt Nam tại Miryang

이상복(밀양)

전시일시 2026년 4월 14일(화) ~ 4월 26일(일)

전시장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전시실 (관람시간 10:00~18:00, 휴관일 4월 20일(월))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12)

개 전 식 2026년 4월 17일(금) 18:30

전시후원 밀양문화관광재단

전시작가 이상복(010-5183-2000)



©이상복_사파 벚꽃 2020

낮설게 느껴지던 풍경은 어느새 나의 일상에 자리잡았다.
풍경이 일상으로, 일상이 풍경으로 오버랩되는 13년의 시간이 나의 베트남이다.

©이상복_안개 속의 처밭 2019



©이상복_모내기 작업 2014





©이상복_안개 속의 바오록 2024



©이상복_미소 아가씨 2016



©이상복_오리떼 사이에서 2023

베트남에서 8년을 거주하고, 이후에도 5년 동안 자주 오가며 이어진 13년의 시간은 나에게 '사진을 찍는 시간'이라기 보다 '살아가는 시간'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풍경과 기후,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고, 카메라는 어느새 그 일상 곁에 조용히 놓이게 되었다.

이 사진들은 의도적으로 특별한 장면을 찾아 나서기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한 풍경과 순간들을 담고 있다. 차발 위로 몽환처럼 번져오는 새벽의 빛, 바다를 깨우는 여명의 숨결, 수확을 앞두고 황금빛으로 물든 다락논, 흠뻑 물결 위에서 뜨겁게 부딪히는 전통 경기의 장면들 또한 그렇게 스쳐 지나간 일상의 한 순간들이었다.

아침의 빛과 비가 그친 뒤의 거리, 익숙한 골목과 창밖의 풍경은 어느새 나의 생활이 되었고, 그 안에서 사진은 기록이자 기억의 방식이 되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풍경이 남고, 그 풍경 위에 다시 일상이 겹쳐지는 순간들. 바로 그 순간들이 나를 매료시켰고, 나는 그 찰나를 담기 위해 셔터를 눌렀다.

이 전시는 한 나라를 설명하려는 자리가 아니다. 다만 그곳에서 머물렀던 한 사람의 시간과 시선을 조용히 나누고자 한다. 이 사진들이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또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게 다가가 서로 다른 기억과 시간이 잠시 겹쳐지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상복_항라이 일출 2019



©이상복_가을의 발걸음 2022



©박영숙_흐르고 얽히다



©박영숙_흐르고 얽히다

나무는 기둥처럼 지탱하고 덩굴 식물은 그 기둥을 타고 그 가지를 타고 시간을 따라 여행한다.
둘은 서로 본능에 따라 움직여 거대한 장막 성채를 완성한다.

[박영숙 개인전] 우리 삶처럼 어울더울 흐르고 얽히다

박 영 숙(대구)

전시일시 2026년 5월 12일(화) ~ 5월 17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제8전시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전시작가 박영숙(010-5226-2373)



©박영숙_흐르고 얽히다



©박영숙_흐르고 얽히다



©박영숙_흐르고 얽히다



나는 늘 창문 너머 자연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말라버린 덩굴이 나무에 감긴 모습을 마주했다.
굳어진 거인의 초상 같기도 하고,
오래된 성채 같기도 한 압도적인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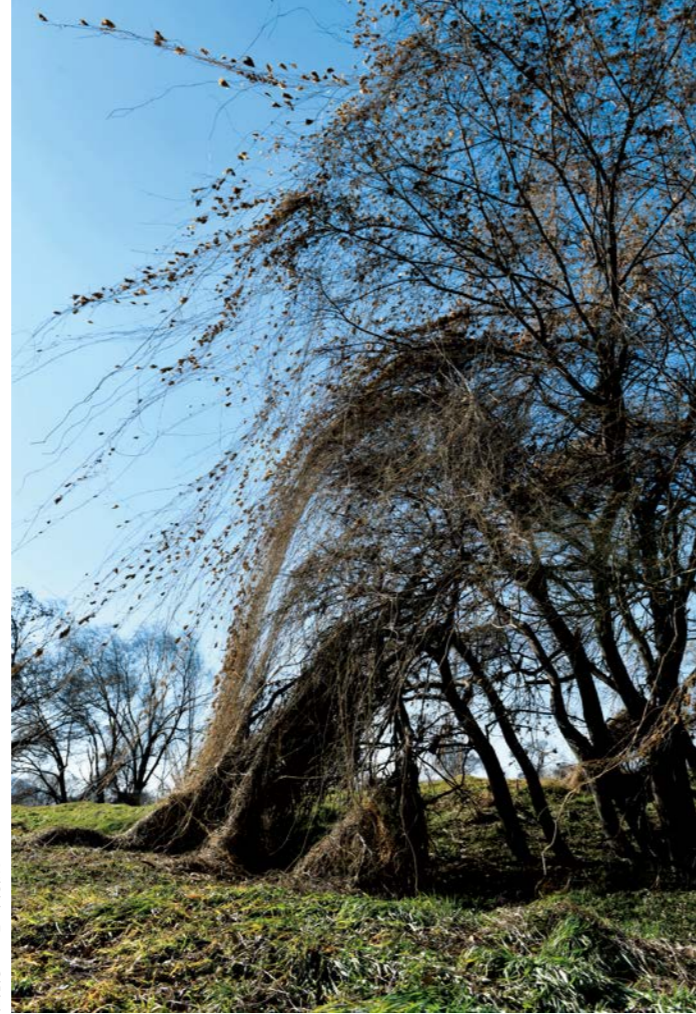
연약한 기생식물이 아닌
나무를 단단히 받치며
땅의 숨결을 이어주는 유연한 통로였다.

견고함과 유연함이 만나
시간의 흐름을 담은 성체처럼 긴장을 풀고,
서로 얽힌 실타래는
새로운 미묘한 긴장을 만든다.

정복이 아닌,
시간 속에 자신을 맡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의 모습.

나무와 덩굴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얽히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우리 삶과 닮았다.
거대한 성벽처럼 버티고,
때로는 부드럽게 내려놓는다.

흐르고 얽힌 흔적과 잔상은
삶의 순환으로 남아
저마다 다른 울림으로 이어진다.



©백영숙_흐르고 얽히다



©백영숙_흐르고 얽히다



©백영숙_흐르고 얽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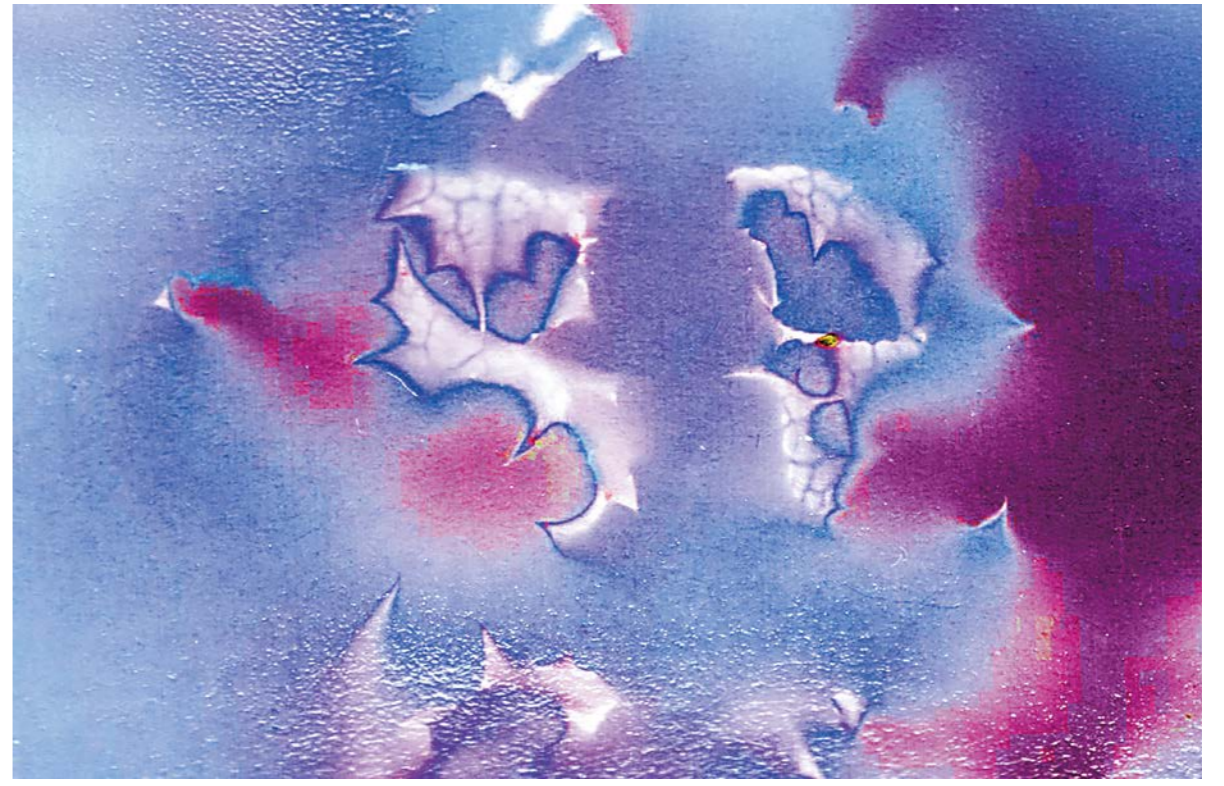


[김영록 사진전]
빛의 궤적 따라 떠오르는 시간의 스펙트럼
THE B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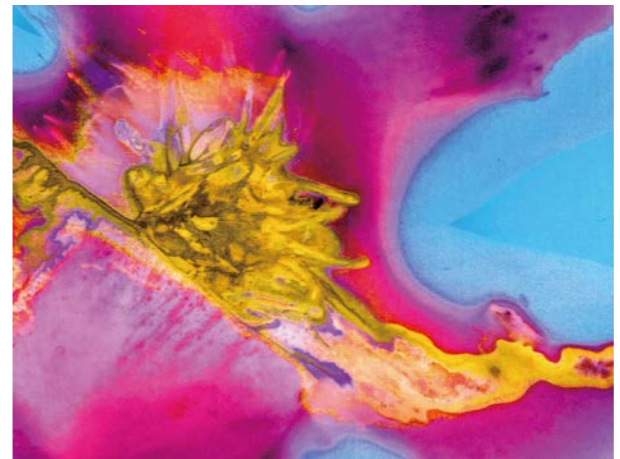
김영록(대구)

전시일시 2026년 5월 12일(화) ~ 5월 17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제9전시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전시작가 김영록(010-8594-0606)

©김영록_The Blue



©김영록_The Blue



©김영록_The Blue



©김영록_The Blue

사진(Photography)의 어원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1830년대 윌리엄 헨리 폭스탈벗이 "광학적 드로잉"을 만들었던 카메라 없는 사진 기술의 초기 시대를 모티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포토그램으로 만들어 보았다. 현대의 사진이 고성능 센서와 찰나의 셔터 스피드에 집중한다면, 루멘 프린트(Lumen Print)는 그 기원으로 돌아가 빛의 정직한 기다림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카메라 본체도, 렌즈도 필요 없다. 오직 인화지 위에 놓인 피사체와 태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이 존재할 뿐이다.

흑백 인화지의 숨겨진 색을 깨우는 것이다. 자연의 덧 없는 아름다움, 형태, 색상, 그리고 물리적 특성을 포착 표현한다. 포토그램의 가장 매력적인 지점은 '역설'에 있다. 본래 암실에서 짧은 순간 빛에 노출되어 검게 변해야 할 흑백 인화지를, 오히려 태양광 아래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인화지 내부에 잠들어 있던 다채로운 색상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인화지 브랜드와 제조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결과물은 보라색, 분홍색, 오렌지색, 혹은 차가운 푸른색으로 발현된다. 이는 인화지 유체층에 포함된 은염(Silver Salts)이 강한 자외선과 반응하며 일으



©김영록_The Blue

키는 화학적 변이의 결과물이다.

노출이 끝난 인화지는 물로 씻어내거나 일반적인 사진 정착액(Fixer)에 담가 더 이상의 반응을 멈추게 한다. 이 과정에서 선명했던 색감이 일부 빠지며 빈티지하고 몽환적인 톤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색의 퇴색'마저도 시간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미지는 식물의 미세한 잎맥과 수분이 머물렀던 흔적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디지털 사진이 '결과' 중심적이라면, 이 포토그램은 철저히 '과정' 중심이다. 날씨라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받아들이고, 태양이 구름 뒤로 숨으면 작업을 멈추어야 하는 이 방식은 나에게 기다림과 겸손함을 가르쳐준다.

공백은 경계의 공간, 분석의 시간, 소속감을 갈망하는 시간, 재회의 시간. 번데기처럼 인내심을 품은 욕망의 시간이었다.

빛에 의해 박제되는 오브제를 자신의 형상을 인화지 위에 남기고 사라진다.

단순히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 피사체와 태양이 함께 보낸 특정 시간대의 '물리적 증거'를 인화지위에 남긴다.

사진의 본질을 탐구하고 존재의 근본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면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실험하고 탐구하고 다듬는 데 더 의미가 있다.

이 사진 작업은 분주한 현대 사회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행위이다. 인화지 위로 떨어지는 햇살의 무게를 느끼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빛의 궤적을 종이 위에 붙잡아 둔다.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숨결을,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었던 기다림의 가치를 전달하기 바랄 뿐.



©김영록_The Blue



©김영록_The Blue



©김영록_The Blue

공백은 경계의 공간, 분석의 시간, 소속감을 갈망하는 시간, 재회의 시간. 번데기처럼 인내심을 품은 욕망의 시간이었다. 빛에 의해 박제되는 오브제를 자신의 형상을 인화지 위에 남기고 사라진다.

단순히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 피사체와 태양이 함께 보낸 특정 시간대의 '물리적 증거'를 인화지위에 남긴다. 사진의 본질을 탐구하고 존재의 근본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면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실험하고 탐구하고 다듬는 데 더 의미가 있다.



+ 월간 한국사진 4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김철수
· 고요속의 자장매

봄의 기록이기 이전에 '고요의 순간' 을 담고자 한 시도이다. 번잡한 세상과 달리, 통도사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매화는 수행자의 깨달음처럼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강렬하다. 자장매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지만, 그 순간을 마주하는 나의 마음은 늘 다르다. 이 작품은 꽃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던 한 순간 기록이다.

붉은 매화는 말없이 묻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Galaxy S24 Ultra,
ISO 32, 115mm, f3.4
촬영장소 양산 통도사



· 이호연
· 36년 만에 보는 개기일식

2026년 3월 3일(화) 정월 대보름에 36년 만에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날. 19시 7분부터 22시 35분까지의 전 과정을 2분 간격으로 촬영했다. 보름달이 개기 월식 진행으로 작아진 후 다시 Blood Moon으로 변환되고, 다시 보름달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완전한 보름달은 다음날 새벽 3시경에 촬영하였다.



· 장경애
· 등지가 있는 풍경

키르키스스탄, 비슈케크

잎을 모두 떨군 나무 위에 수 많은 등지가 남아 있었다. 한 계절을 지나며 떠난 것과 남겨진 것이 겹겹이 얹혀 있었다. 노을이 스미던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비어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간이 머문 자리처럼 보였다. 나는 그 앞에서 멈춰 섰다. 그 풍경은 시간의 자리처럼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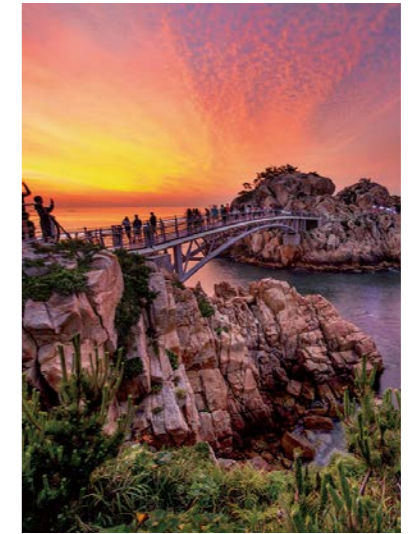
Canon 5D MARK IV



· 정성모
· 봄 날 1

아름다운 봄날을 표현 하고자 벽에 핀 개나리에 한국적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찬란한 봄을 표현 해 봅니다.

Nikon
렌즈 24~70mm, ISO100



· 박민자
· 대왕암 풍경



· 장덕재
· 결

바람이 불어 빚어낸 사막의 모래 결 자연의 신비로움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선물

Canon
렌즈 35~70mm(f2.8)
조리개 8, 셔터속도 1/25, ISO100
촬영장소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사막



· 홍이선
· 흥매의 미소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의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 배부하며, 추가 구매 가능) 구상, 비구상 뿐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투고 선정 방식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임원, 지회·지부장 추천 투고 신설
2.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충실 요망
3. 투고작 심의 - 이사위원회 출판팀 선정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sk / 비밀번호 kpsk
접속 후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추천투고 중 택1 폴더
선택 - 선택 폴더에 투고자 성명 폴더 생성 후 작품2점 + 작품명, 작가
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딩 요망

※단, 최종 선정된 표지 원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확한 촬영데이터(촬영일자, 장소, 카메라 기종, 사용 렌즈, Filter Interval 외)를 공개해야 함.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제훈_1969 사이공의 기억



©박제훈_1969 사이공의 기억

난민촌의 아이들은 전쟁 통에서도 웃고있었다.
그 해맑은 미소와 눈동자를 사진병으로서 촬영한 후 이제 60년만에 공개하게 되었다.

1969 사이공의 기억

'60년 시간을 건너온 맑은 눈동자'
박제훈(인제)



©박제훈_1969 사이공의 기억



©박제훈_1969 사이공의 기억



©박제훈_1969 사이공의 기억



©박제훈_1969 사이공의 기억



1969년 초, 대전 육군통신학교 사진학부에서

의 일상을 뒤로하고 나는 파월 명령을 받았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사이공 인근의 비둘기부대였다. 총칼이 오가는 격전지 대신, 나는 건설지원단의 사진병으로서 도로가 닦이고 건물이 세워지는 재건의 현장, 그리고 태권도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간 지원의 현장을 누볐다.

하지만 셔터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사이공 인근의 월남 난민촌이었다.

그곳에서 마주친 아이들의 표정은 놀라움 만큼 티 없이 맑고 진지했다. 그 눈망울 속에서 나는 6.25 전쟁 당시, 시골로 피난가 고단한 삶을 견뎌내던 일곱 여덟 살의 '나'를 발견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포화가 휩쓸

고 간 자리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생명력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난민촌을 찾아 그들의 찰나를 기록하며, 마치 저의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보듬듯 셔터를 눌렀다.

시련도 있었다. 7월 사이공의 무서운 폭우는 침실 밑에 보관해두었던 소중한 필름 원고들을 앗아갔다. 아연실색하며 텅 빈 보관함을 바라보던 그 허망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다행히 서랍 높은 곳에 두어 화를 면한 일부 인화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남은 기록의 전부가 되었다.

어느덧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사진 속 그 아이들도 이제는 환갑을 넘긴 중년이 되었겠지. 만약 이 사진들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다면, 당신들의 어린 시절은 그토록 눈부시게 빛났노라고, 그리고 머나먼 미국의 한 병사가 당신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노라고 전하고 싶다.

비록 유실된 원고가 많아 완벽한 기록은 아닐지라도, 남겨진 이 사진들이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인류애와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박제훈



©박제훈



©박제훈



©박제훈



©박제훈



©이호범_생과 멸

영원한 순환, 빈자리에 또 다시 피어나라
‘생과 滅’ 그 찬란한 공존

이 호 범(대전)



©이호범_생과 멸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 영원한 순환, 생명의 경이 앞에 내 카메라는 경건해진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과 또 모든 태어나는 것들에 경의를 표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태어남과 동시에 사라짐을 향해 걷는다. 우리는 이를 '생(生)'과 '멸(滅)'이라는 두 단어로 갈라 부르지만,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에서 이 둘은 결코 떨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멸(滅)은 생(生)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을 품기 위한 너그러운 바탕이자 뜨거운 자궁이었다.

이번 작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잊히고 버려진 것들에 주목했다. 한때는 누군가의 갈증을 해소했을 투명한 플라스틱병, 뜨거운 열기를 품었을 녹슨 통조림 캔, 그리고 대지로 돌아가기 직전의 바스라진 낙엽들, 소임을 다하고 버려진 이 '멸'의 상징들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순수한 '생'의 빛을 극대화하는 무대가 된다.

투명한 병 속의 나무뿌리와 노란 복수초의 생명력은 차가운 인공물조차 자연의 일부로 동화시킨다. 불게 부식되어 부서져 가는 캔의 입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그 안에서 고개를 내민 꽃의 생기를 더욱 고귀하게 증명한다.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마른 잎사귀들 사이로 피어난 분홍빛 꽃잎은 죽음과 삶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증거다.

나는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했다. 부식되고 닳아 없어지는 과정은 결코 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정직한 몸짓이며,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숭고한 희생이다. 그 낡고 거친 질감 위에 엮어진 꽃의 부드러움은, 시간의 흐름 앞에 인간이 느끼는 허무를 위로하는 따뜻한 시선이기도 하다.

사진 속에 담긴 10여 점의 기록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 걸을 스쳐 지나가는 이 찰나의 생명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

'생'과 '멸'의 경계에서 피어난 이 작은 생명들이, 독자들에게는 메마른 일상을 깨우는 한 줄기 빛이자 존재의 본질을 되새기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낡은 것들의 등 뒤에서 피어난 꽃은, 내일도 여전히 찬란할 것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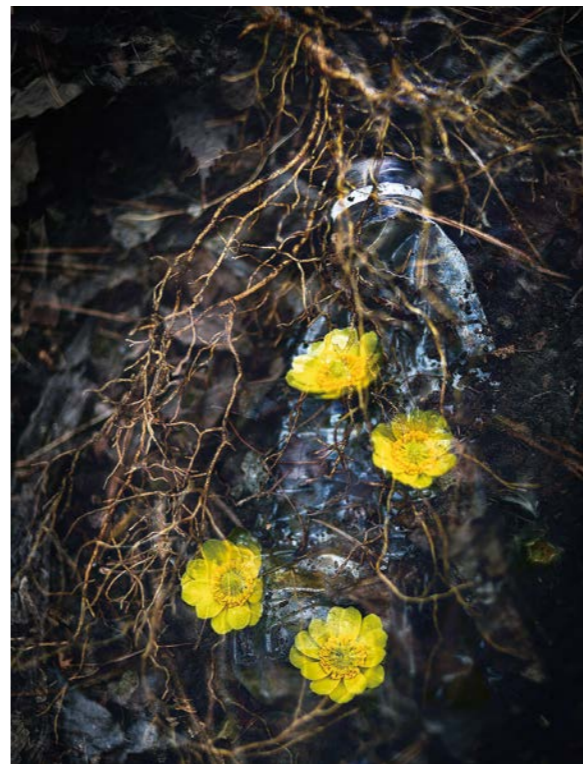
© 김민정



© 김민정



© 김민정



© 김민정



© 김민정



© 김민정



©은효진_만년설



머물러 바라보고픈 고원의 이상향 상그릴라

은 효 진(고양)

상그릴라는 지명이라기보다 하나의 약속의 땅이다. 1933년에 발표한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 지상낙원이라 표현한 이상향에서 출발한 이름이 중국 운남성 디칭 티베트 자치주의 고원 도시 상그릴라에 와서 비로소 현실의 얼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의 풍경은 '낙원'이라는 단어로 단정되기를 거부한다. 사진 작업은 바로 그 간극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국 운남성 곤명에서 비행기로 약1시간 소요 자동차로 7시간 소요 가면 중칭에 도착할 수 있다.이곳에서 고도적응을 위해 1박 후 다음날 자동차로 험한 산길로 180km 정도 하루를 가 가야 마을에 도착 숙박을 정하고 다음날 등정을 시작한다.



©은효진_순례탑 2017

그 곳의 자연은 배경이나 부제로 남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인간과 같은 높이에서 하늘에서 허락한 그 모습 그대로 주인이 되어 이방인과 대면한다.



©은효진_노성타루초 2017



©은효진_우유해 해발4.500m 2011



©은효진_푸다취 국립공원 2011



©은효진_일출 2017

평균 해발고도(3,500~4500m)가 넘는 고원의 풍경들은 느린 호흡에서 빛은 빠르게 변한다. 구름은 낮게 흐르고, 햇빛은 순간적으로 땅을 열었다가 다시 덮는다. 숨은 가파 오고 있다. 이곳에서의 촬영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서두르면 풍경은 닫히고, 멈추면 비로소 길이 열린다. 셔터는 풍경을 소유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사체와 호흡을 맞추기 위한 무한한 도전의 정신력이다.

인간의 흔적이 남긴 돌길, 목조 가옥, 그을린 벽면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두꺼운 고성인 골목은 관광지로 변모해가고 있겠지만, 새벽과 해질녘에는 여전히 생활의 온도차이가 많이난다. 그러나 시간대의 사진은 '보여주는 풍경'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흔적'을 남기려한다.

자연은 배경이 아니다 초원과 호수, 침엽수림은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인간과 같은 높이에서 존재한다. 푸다취 국가공원에서의 촬영은 자연을 정복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 카메라는 한 발 물러서 자연과 인간이 나란히 놓이는 지점을 찾으려 한다.

중요한 것은 '이국성'의 강조를 경계하는 일이다. 상그릴라는 신비롭지만, 동시에 매우 구체적인 삶의 장소다. 사진은 낯설을 과장하지 않고, 익숙함을 서둘러 해석하지 않는다. 이해하기보다 머무르기를, 설명하기보다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나의 사진 철학이다.

상그릴라는 결국 이상향이 아니라 질문에 가깝다. 우리는 어떤 풍경을 꿈꾸고, 그 꿈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이 사진들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기 위한 기록이다.



©한상훈_데사나치족



©한상훈_함머족

6.25때 한국 도운 나라, 그 곳은 지금 사람 IN 에티오피아

한상훈(부산)

에티오피아는 최초의 인류 화석인 Lucy가 발견되었고 4세기경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중심을 조금 벗어나면, 반세기 전의 한국 같아 정경기도 하다. 가이드와 함께 가도 그들 부족의 가이드가 또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다는 메르카도에는 현지인 없이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다.

커피 세리머니와 로컬커피
그들의 전통력에 따르면 지금은 2018년으로 7, 8년 정도 늦다. 화폐 단위는 비르로 200비르가 가장 큰 지폐인데 우리 돈 2,000원에 해당하니 경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폐가



©한상훈_로컬커피

에티오피아는 지금 그들만의 달력으로 2018년이다.
지체된 문명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킨다.



©한상훈_바나족



©한상훈_카라족



©한상훈_카라족



©한상훈_함머족



©한상훈_메르카도



©한상훈_메르카도

잘 구겨지고 허름하다. 그들은 거리에서 로컬커피를 15비르에 마시며, 외국인에게는 30비르를 요구한다. 최고의 전통음식인 인젤라를 먹고 커피 중추국으로서 곳곳에서 커피 세리머니를 한다. 도로와 철도가 발달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항공 이용을 많이 하게 되니 왕래가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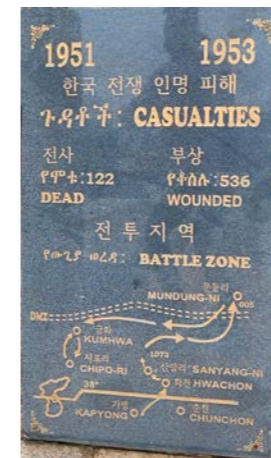
오모계곡의 원시부족

징가 지역의 오모계곡에는 아직도 여러 원시 부족이 살고 있다. 입술에 큰 접시를 끼울수록 인내심이 좋다고 남성들에게서 인기 있는 무르시족 여성들, 적이나 맹수들로부터 가족을 지키려고 장대에 올라 망을 보던 바나족 등... 성인 남자를 보기 힘든데, 결혼식이 있어서 마침 남성들이 모여 회식하는 장면도 보고 그들의 움막에서 커피 세리머니로 대접받는 행운도 있었다. 더욱 딱한 것은 키만큼 땅을 파 물을 길러 음료

와 생활용수로 쓴다길래, 우리나라에서 우물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강뉴부대와 한국전 참전 기념관

6.25 전쟁 당시에 한국에 지상군을 보낸 아프리카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 강뉴부대는 황제의 근위병으로 하일레 셀라시에 1세가 직접 선발한 최정에 부대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고아원을 세워 그들의 봉급을 모아 전쟁고아들을 돌보았다. 귀국 후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지만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제국주의 하수인이자 반동'으로 몰려 '코리안 빌리지'는 고통을 많이 받았다. 다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명예 회복과 함께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도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귀국 후 평화방송에서의 후원사업을 듣고 조금이나마 나도 동참하게 되어 부듯하다.



©한상훈_기념관



©한상훈_기념관

한국사진 '기록에서 예술로' 그 궤적 한눈에... 前後의 시선 : 동강사진박물관 20년 특별전

글: 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은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사회적 모순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한국 사진의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는 전후의 복구와 4.19혁명 이후 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는 안에서, 사진가들은 살롱사진, 회화적 사진의 예술성에서 리얼리즘 사진으로 현실을

기록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최민식 작가는 평생에 걸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얼굴을 통해 한국 휴머니즘 사진의 상징이 되었고, 이형록, 임응식 등 사회의 상흔과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꾸밈없이 담아낸 인간 중심의 다큐멘터리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1970년대는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다큐멘터리 사진은 산업화, 노동, 농촌 붕괴 등 사회 문제를 다룸으로써 점차 사회 비판적 성격을 띠



전시전경, 동강사진박물관 제공

전시전경, 동강사진박물관 제공



전용각

2001년 사진마을을 선포하고 20여년간 '동강국제사진제'라는 이름으로 사진 축제를 이어오고 있는 강원도 영월의 동강사진박물관에서는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작년 말부터 동강사진박물관 본관 제1, 제2 전시실에서 특별 기획으로 <前後의 시선>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 전시는 그간 사진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해 온 동강사진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아우르는, 한국 사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와 작품들을 선정해 구성하고 있다.

제1전시실은 한국 사진의 세대교체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구성으로, 역대 동강사진상 수상자 중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 의식과 담론을 제기하고,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선보인 작가의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제2전시실은 1960~1980년대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에서부터 1980~2000년대 한국 사진을 중흥기로 이끈 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전시하여, 한국 사진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려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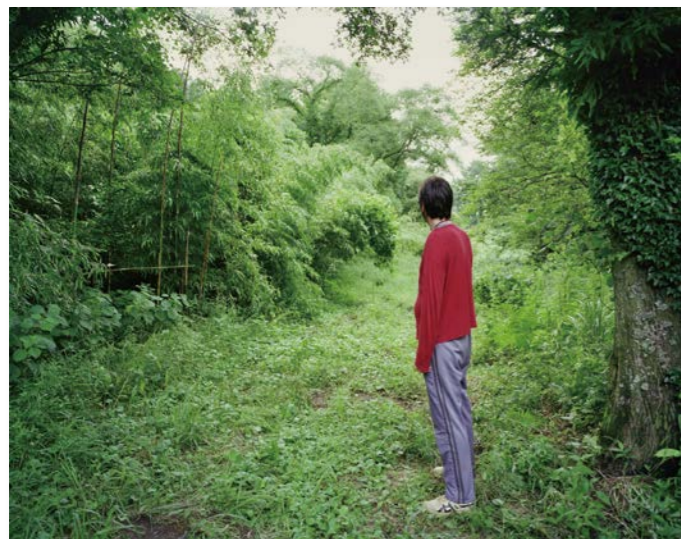
거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적 가치에 주목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밀려난 도시 빈민이나 노동자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들이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한국의 전통, 민속, 관습 등을 남기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고, 보도사진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작가의 주관적 시선이 개입된 다큐멘터리적 요소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사진가들은 노동자, 농민,

시위현장의 진실을 알리는 민중사진을 위해 카메라를 들었고, '골목 안 풍경'처럼 서민의 정서를 담은 작업도 지속되었지만, 신진 작가들은 분단의 현실, 노동환경, 환경문제 등 더 비판적인 주제를 파고들었다. 또한 '사진마당', '민중사진가협회'가 결성되는 등 사진집단이 등장해서 조직적인 다큐멘터리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는 90년대 이후 한국 현대 사진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1980년대는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사진은 사회 변혁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원성원, IT전문가의 물품 네트워크, 2017



©김옥선, 함일의 배, Kevin the humanist, 2007

해외에서 현대 사진과 이론을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작가들이 사진을 단순한 대상의 복제에서 작가의 관념을 보여주는 현대 예술임을 주창하고, 구분창 작가처럼 실제 상황이 아니라 작가의 연출과 구성을 통해 작업하는 구성 사진도 도입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의 분위기를 이어 1990년대부터는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순수 예술사진, 실험사진, 개념사진들이 등장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른 예술 장르들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며 사진은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에 더해 2000년대에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보정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강력한 컬러사진들과 대형 인화작업들이 미술관과 갤러리를 차지하게 되고 비약적으로 발전한 후보정 기술을 통한 합성, 조작등이 인정받으면서 사진은 현실의 재현이나 객관적인 진실보다 구성된 현실의 '사진적 진실'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구분창, 긴 오후의 미행 시리즈, 1985



©전몽각, 윤미네 집, 서울 갈현동 집에서, 1978-1979



©박영숙, 36인의 포트레이트, 박정자(연극인), 1981



©윤주영, 우리 어머니 시리즈, 충남 태안, 1996



©홍순태, 여수 갈치, 1971

이렇듯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국 사진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사진'에서 시작해 '예술로서의 사진'으로 진화해온 역동적인 과정이었다. 이러한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지금의 사진은 더 이상 '사진'이 아니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디지털 사진환경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상화 되고 SNS의 등장으로 이미지의 소비방식이 변화되었으며, 예술가들에게는 영상 및 설치, 퍼포먼스와 결합되어 사진은 예술 작업의 하나의 프로세스이자 개념이 되는 시기가 되었다. 시로 제작된 가상의 이미지까지 작업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잘 찍는



©강홍구, 수련자-요기소지, 2005



©민병현, River 시리즈, 2012

것'을 넘어 나만의 경쟁력을 가져야만 하는 때가 되었다. 유명한 어떤 작가와 같은 수준의 사진으로 보이고자 그와 같은 사진의 구성과 형태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도태당할 날을 기다리게 될 뿐이다. 특정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여 자신의 작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능력, 원하는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편집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해야 하고, 대상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항상 고민해야만 작가로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때이다.

멋진 대상을 찾아 노출만 잘 맞추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었던 사진. 옛날에 비해 사진가로 산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체되지 않고자 하는 나의 노력에 따라 평생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사진이지 않는가. 변화를 신경쓰지 않고 이제까지 해 오던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 변화되는 것 때문에 공부해야 할 것이 끊이지 않는 것에 힘들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새로이 배울 것이 있을 것에 즐거워하며 희망차게 새 작업을 모색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자.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변함없는 사진이
진정성이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네안데르타르인의 유전자가 말한다 4만 년 전, 전쟁과 사랑의 흔적

글·사진제공_최승언



가족단위의 거주하는 네안데르타르인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 지구의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유라시아 대륙의 광활한 길목에서,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온 두 인류가 운명적으로 마주쳤다. 한쪽은 유럽의 혹독한 빙하기를 견뎌내며 육체적 완성도를 높인 '네안데르타르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지적 외연을 확장해온 현대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였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두 종족의 조우를 넘어, 인류가 지구의 유일한 지배자로 우뚝 서느냐, 혹은 자연의 섭리 속에 사라지느냐를 결정짓는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이었다. 우리는 흔히 네안데르타르인이 미

개하여 도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은 이들이 정교한 감정과 문화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두 종은 각기 다른 환경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네안데르타르인은 유럽의 냉혹한 추위를 뚫고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다. 그들의 체형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고 굵었으며, 흉곽은 넓었고 근육량은 압도적이었다. 거대 짐승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울 수 있는 '빙하기의 전사'였다. 그들의 넓고 큰 코는 차가운 공기를 데우는 역할을 했다.



네안데르타르인 두개골. 40만년전에서 4만년 전까지 존재했다.



호모사피엔스의 두개골. 사피엔스는 슬리름다의 뜻이 있다.



네안데르타르인 유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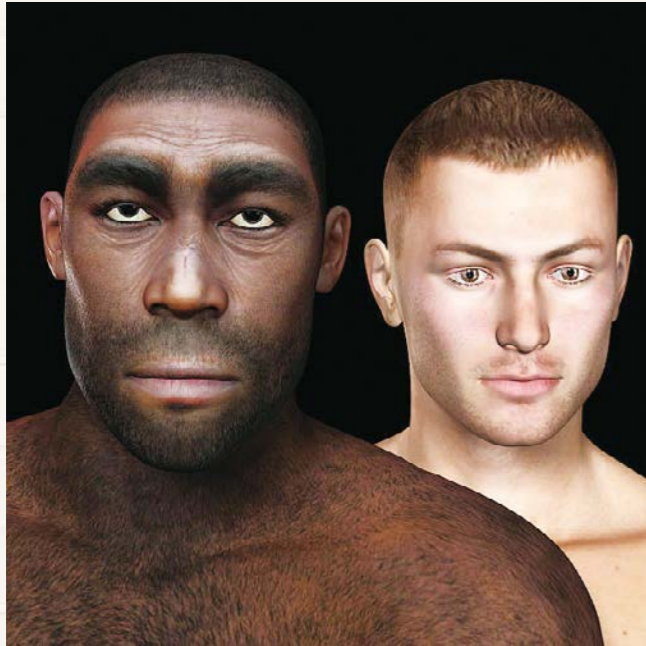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기원했다. 그들은 열 배출에 유리하도록 팔다리가 길고 날씬한 체형을 가졌다. 뼈의 구조 덕에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지구력과 민첩한 순발력을 갖게 되었다.

흔히 네안데르타르인의 지능이 낮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뇌 용량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조금 더 컸다. 하지만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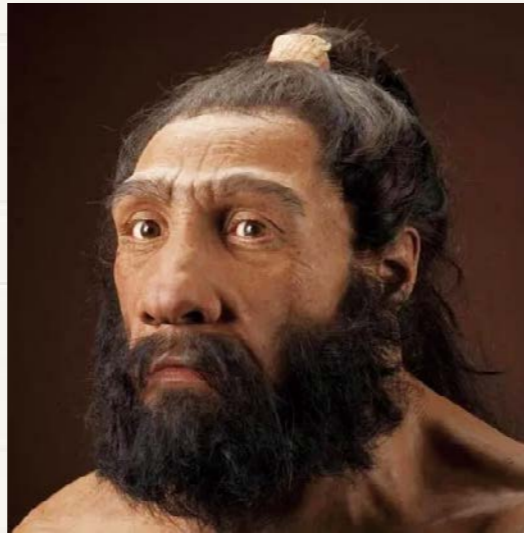
네안데르타르인의 두개골은 뒤로 길쭉한 형태였으며, 주로 시각적 인지와 운동 능력을 담당하는 후두엽 부위가 발달했다. 이는 어둡고 험한 빙하기 지형에서 사냥감을 포착하고 지형을 파악하는데 특화된 결과였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은 '언어'였다. 해부학적으로 네안데르타르인은 후두가 목 윗부분에 높게 위치해 있었다. 이는 소리를 내는 공명 공간이 좁다는 뜻이며, 호모 사피엔스가 구사하는 '아 에 이 오 우와' 같은 복잡한 모음 발음을 정교하게 내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수직으로 높게 솟은 이마 아래 '전두엽'을 발달시켰다. 전두엽은 추상적 사고와 사회적 지능, 그리고 복잡한 언어 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부위다. 사피엔스는 정교한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했다. "저 너머 숲에 물이 있고, 그 옆 바위 뒤에 맹수가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 공유는 사피엔스만의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대륙에 살던 이들은 왜 만나야만 했을



현대 인류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복원 모형

까? 답은 '생존의 절박함'에 있었다.

약 10만 년 전부터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북유럽의 초원은 얼어붙은 동토로 변했고, 네안데르탈인의 식량이었던 대형 초식동물들이 풀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던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의 남쪽 끝을 지나 중동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아프리카에서는 대가뭄과 인구 증가라는 압박이 호모 사피엔스를 덮쳤다. 살기 위해 북쪽으로 향한 사피엔스는 기회의 땅인 유라시아로 향했다. 이 두 인류가 마침내 얼굴을 맞댄 곳이 바로 현재의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잇는 '레반트 회랑(Levant Corridor)'이었다. 아프리카와 유라시아를 잇는 이 좁은 길목은 인류사에서 가장 거대한 교차로가 되었다.

두 종의 만남이 늘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카프제(Qafzeh)의 스쿨 동굴 등에서 발견된 유골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인 치열한 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피지컬 면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1대 1의 육탄전이었다면 사피엔스는 결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것은 '거리'와 '정보'였다.

네안데르탈인은 묵직한 석창을 들고 직접 달려드는 정공법을 구사했다. 이는 웅맹했지만 늘 부상의 위험을 동반했다. 반면 사피엔스는 투창이나 활 같은 원거리 무기를 사용했다. 직접 부딪히지 않고도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은 사피엔스 집단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독일의 스반테 파보 박사. 현대 인류의 유전자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4%까지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네트워크'였다. 네안데르탈인의 기술은 10~15명의 소가족 단위에서만 전수되었기에 수만 년간 정체되었다. 그러나 사피엔스는 멀리 떨어진 부족과도 정보를 공유했다. "이 돌은 이렇게 깎아야 더 잘 날아간다", "저 식물을 먹으면 상처가 빨리 낫는다"는 지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언어를 통해 확장되었다. 결국, 집단 지성을 발휘한 사피엔스의 소프트웨어가 네안데르탈인의 강력한 하드웨어를 이긴 셈이다.

카프제 동굴의 지층에는 네안데르탈인의 투박한 석기와 호모 사피엔스의 화려한 조개 장신구가 함께 섞여 나온다. 이는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불을 공유하고, 삶의 궤적을 나누었음을 증명한다.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이 싹트고,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았다. 21세기 유전학은 이들의 사

랑이 남긴 가장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다. 아프리카 밖으로 나간 현대인의 DNA 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약 1~4%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낯선 유라시아 환경의 세균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제공했고, 추운 기후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지혜를 몸속에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유라시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피엔스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자신을 내어주고 '흡수'된 것이다. 4만 년 전 레반트 회랑에서 벌어진 사건은 일방적인 학살이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하며, 마침내 하나가 되어가는 거대한 인류 통합의 드라마였다.

이미지 시대는 기술이 미학을 결정한다 이미지 시대의 사진캐논과 사진가의 역할III

글, 사진제공_백택수(본협회 상임이사, 사진평론가)



초기 다케레오 초상



35mm와 스냅사진 등장



대형 카메라와 풍경사진



스마트폰과 플랫폼 시대의 사진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진의 감각·시선·미학의 조건을 만든다

사진의 미학은 '감성'이 아니라 '조건'에서 시작되는데, 전통 예술 담론은 미학을 주로 작가의 감성, 철학, 개성, 창조력에서 찾았는데, 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사진은 손으로 그리는 예술이 아니라, 장치가 매개하는 시각 기술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다르다.

그래서 사진의 미학은 언제나 '감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사진의 미학은 먼저 조건에서 출발한다.

기술이 바뀌면 미학도 반드시 바뀌는데, 카메라 형태가 바뀌면 시점이, 필름 감도가 바뀌면 표현이, 렌즈가 바뀌면 보는 방식이, 현상/인화/후반 기술이 바뀌면 미적 규범이, 디지털과 AI의 등장으로 진실성·창작성·표현 기준이 바뀐다.

즉,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미학의 전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시각적 인식의 틀을 자체를 규정한다.

왜 '기술이 미학을 결정한다'는 것인가?

첫째 회화는 손의 한계 안에서 무한히 변형되지만, 사진은 기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한다.

예를 들어, 느린 셔터의 시대에는 '결정적 순간'의 미학이 제도적으로 어려웠지만, 고감도·연사·휴대성이 보편화되면서 '움직임 속의 찰나'는

일상적 미학이 되었다.

즉, 사진의 미학은 작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무엇이 가능해졌는가'에 의해 형태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기술은 미학의 형식(form)을 만들고, 형식은 사고를 만드는데, 기술 → 형식 → 시각적 사고, 인식라는 연결이 성립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크기와 무게는 촬영 자세를 만들고, 촬영 자세는 시점을 만들며, 시점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만든다.

따라서 기술은 단지 '사진의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진가의 몸, 습관, 판단, 심리까지 바꾸는데, 그것은 기술이 미학의 외부 조건이 아니라 미학을 생산하는 내부 조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AI 이후 이미지 시대의 논쟁인 진실성/창작성/윤리는 기술 논쟁으로, 합성 가능성이 진실성 개념을, 생성 가능성이 창작 개념을, 유통 속도는 윤리의 개념을 변화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 변화는 곧 미학 변화이고, 동시에 진실과 윤리의 규칙 변화이다.

사진의 기술·미학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 공식

기술은 형식(form)을 만들고, 형식은 시각적 사고를 결정한다.

즉, 기술은 사진의 감성과 윤리뿐 아니라 사진가의 심리적·인지적 틀까지 변화시키는데, 여기서 '형식'은 단순히 구도나 스타일이 아니며, 형식은 가로/세로/정사각의 프레임의 비율, 선명도와 노이즈의 허용치, 얇고 깊은 심도의 기본값, 필름·센서·LUT의 색 재현 방식, 장노출/고

속/연사/타임랩스 등의 시간의 묘사 방식들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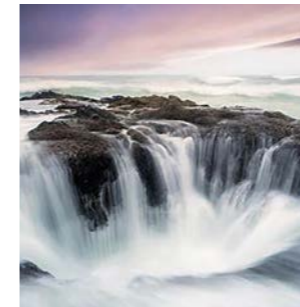
형식이 바뀌면, '무엇이 아름다운가'와 '무엇이 사진다운가'도 바뀌는데, 그것은 기술이 미학의 취향을 만드는 공장이자, 사진가의 인식을 조율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정사각 프레임 형식



얕은 심도와 집중의 미학



장노출과 시간의 재구성



고속 셔터와 찰나의 조형성

기술이 미학을 변화시킨 7가지

사진사 전체를 살펴보면 사진 기술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미학·스타일·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첫째 19세기 초 대형 카메라 시대는 정적·조형적 미학으로, 무겁고 큰 카메라, 긴 노출, 삼각대 고정인 움직임이 잡기 어렵고, 촬영 자체가 의식(ritual)에 가까웠다.

당시 인물사진은 정면성·상징적 포즈, 구성 중심이고, 풍경사진은 장중하고 조형적인 안정된 수평·수직 스타일로 정착되어 '좋은 사진'은 흔들림이 없고, 안정적이고, 조형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는데, 이 시기 미학은 '작가의 감성'이라기보다 '느린 기술이 요구한 형식'이었다.

둘째 건판·필름의 시대는 기동성의 미학으로, 휴대 가능한 작고 가벼운 카메라의 등장으로 비교적 빠른 노출, 이동 촬영이 가능해서 거리·현장 중심의 미학 출현했는데, 대표적 변곡점은 Leica I 소형 35mm카메라 출현이었다.

이때 거리·현장 중심의 스냅사진과 비대칭 프레임, 순간 포착을 하고, 로우/하이앵글 등 새로운 시점의 대중화가 확산되며, '우연의 미학'으로, '완벽한 조형'이 아니라 '살아 있는 순간'이 미학적 가치가 되면서 기술이 '움직임'을 허락하자, 미학은 즉시 '정지된 조형'에서 '살아 있는 우연'으로 이동했다.



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 계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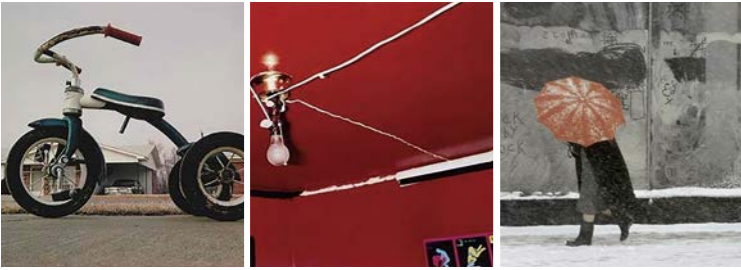
셋째 포토저널리즘의 시대는 결정적 순간의 미학으로, 카르티에-브레송, 카파 등의 사진가가 빠른 셔터와 이동성 기술로 '결정적 순간'이라는 미학적 개념을 가능하게 해서 순간의 압축, 사건의 드라마, '지금-여기'의 긴박감 등으로 위대한 사진은 '찰나의 진실'을 포획해야 한다는 신화가 탄생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신화가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술적 가능성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카파의 D-Day 상륙 장면

넷째 칼라 필름 시대는 감각적·정동적 중심 미학이 본격화되어 Eastman Kodak의 칼라 필름 도입 이후 색의 재현이 보편화되어 색이 기록과 표현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색의 의미와 감정을 동시에 운반해서 색의 조합이 '내용'이 되었고, 일상의 색이 미학적 주제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흑백의 '형식적 숭고' 중심에서, 색의 '감각적 설득' 중심으로 미학이 확장되었으며, 색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감정 구조를 설계하는 언어가 되고 기술이 감정의 문법을 바꾼 것이다.



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 계열 이미지

다섯째 디지털 시대는 후반 작업 미학으로, 디지털 카메라 + RAW 포맷 + Adobe Photoshop으로 즉시 확인, 무한 복제, 비파괴 편집, 합성이 용이한 새로운 시각 미학이 등장한다.

'있는 것을 찍는다'에서 '있는 것을 구성한다'로 HDR, 합성, 색보정 룩의 유행하며, 필름룩 시네마룩의 재현이 되었는데, 사진의 '진짜'는 더 이상 자동이 아니라, 설계되는 진짜(constructed reality) 인 구성된 사실성이 되어 이때부터 미학은 촬영보다 후반 파이프라인이 좌우한다.



RAW와 Photoshop의 비파괴 편집 합성 기술

여섯째 스마트폰 시대는 압축·속도·SNS 미학으로, 누구나 생산자가 되어 세로 화면을 기본으로 해서 항상 소지와 즉시 업로드, 자동 보정, 인물/제품/일상 등으로 '빠르게 읽히는 이미지'가 강해져 사진의 언어가 대중화되며 일상적 미학으로 등장했고, '잘 찍는 사진'이 아니라 '잘 도달하는 사진'이 미학적 성공 조건이 되며, 스마트폰은 사진의 문법을 플랫폼 문법으로 변환시켰다.



스마트폰 사진은 세로 화면, 즉시 촬영 확인 업로드, 자동 보정, SNS로 '빠르게 읽히는 이미지'로 재편

일곱째 AI 시대는 탈지표성·재구성 미학으로, AI는 카메라 없이도 고해

상·고선명하게 스타일을 즉시 모방해서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AI는 사진을 대체한다기보다, '사진처럼 보이는'의 범위를 넓혀서 미학의 기준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

과실감과 시간 없는 시간성, 주체의 시선이 약해지고, 데이터의 평균 시선이 강화된 '진짜 미학'보다 '가능한 미학'이 유통된다.



"교황의 흰 패딩" 이미지는 실제 촬영 사진처럼 보이지만 AI 생성

기술은 '시점(Viewpoint)'을 결정한다

시점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술이 '선택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한다.

기술이 만든 새로운 시점들의 예는 드론으로 인간의 눈높이를 넘어선 수직적·조감도 미학, 액션캠은 몸의 시선 미학, 광각 렌즈는 확장된 공간의 미학, 스마트폰은 팔 길이의 시점, 얼굴 중심의 자기브랜딩 미학이다. 그래서 시점이 바뀌면 '세계'가 바뀌는데, 시점은 단지 높낮이가 아니며, 시점은 '무엇이 중요해 보이는가'를 결정하므로, 기술은 사진가의 선택이나 시점뿐 아니라 '어떤 시점을 볼 수 있는가'를 미리 결정하는 구조이다.



드론 이미지



액션캠 이미지



광각 왜곡 이미지



스마트폰 셀피 이미지

기술은 '시간성(temporality)'을 재구성한다

사진의 시간성은 셔터 속도·연사·노출 촬영 간격 기술에 의해 바뀌었는데, 장노출은 순간을 지워서 흐름을 드러내고, 고속 셔터는 흐름을 잘라 정지의 미학을 만들며, 타임랩스는 세계의 시간을 압축해 보여주며, CCTV는 사진이 사건 이후의 예술이 아니라, 사건과 함께 흐르는 '감시/증거'의 형태가 되고, AI 이미지 생성은 존재하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 낸다.

즉, 기술은 사진이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가'를 규정해서, 기술이 시간의 경험 방식을 바꾸면, 사진의 존재론도 바뀐다.



장노출 이미지



고속 셔터의 물 튀김 사진



타임랩스/라이트레일 이미지



CCTV 화면

기술은 '프레이밍·구도'를 결정한다

프레이밍은 손의 선택 같지만, 사실은 기계의 습관으로, 대형 카메라는 안정된 중심, 수평/수직의 엄격함, 35mm카메라는 비대칭, 잘림, 즉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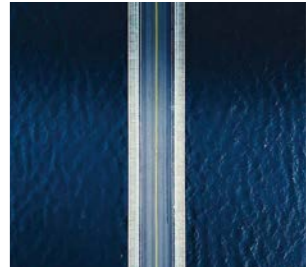
35mm카메라 거리사진



스마트폰 셀카 이미지



드론의 상공 수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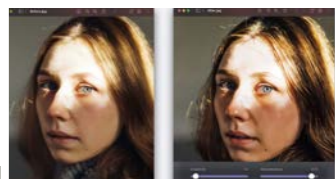
대칭적 건축 사진

적 프레임, 스마트폰은 세로 중심, 중앙 집중, 드론은 수평선/대칭/패턴의 강화로 '인간의 손'이 아니라 '기계의 형태'가 프레임링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술은 '미적 감각'의 기준까지 바꾼다

특정 기술이 특정 미학을 유행시키는데, 인스타 필터는 감성적 톤의 표준화, 필름룩은 향수·복고의 대량 생산, 4:5 화면비는 SNS, 플랫폼 최적화가 미학으로 인식, AI 업스케일/하이레졸은 과도한 선명함이 미적 기준이 되는 현상으로, 여기서 미학의 권력은 작가에서 기술 기업·플랫폼으로 이동한다. '무엇이 이쁜가'는 개인 취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배포한 기본값이다.

그리고 '기술 기본값'이 규범이 되는 순간을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느끼는데, 피부는 매끈해야 하고, 하늘은 더 파랗야 하며, 그림자는 덜 지저분해야 하고, 노이즈는 결함이다. 라는 규범은 미학이 아니라 기술 보정의 습관이 만든 표준이다.



AI 업스케일 전후



뷰티 필터 전후



인스타그램 필터 전후



풍경 업스케일 전후

기술은 '진실성'과 '윤리'를 결정한다

첫째 필름→디지털→AI의 윤리 문제는 기술 조건이 바뀔 때마다 재발 생했는데, 필름 시대는 조작이 어려워 '사진은 대체로 믿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디지털 시대는 합성이 쉬워 '어디까지가 편집이고 어디부터가 조작인가?' 라는 논쟁이 있었고, AI 시대는 경계가 붕괴되어 '사진과 비사진의 구분은 무엇으로 가능한가?'라는 근본 질문이 발생되어 기술은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진실성·윤리의 기준을 재 설정했다.

둘째 유통의 속도는 윤리를 무력화하는데, 이미지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조작 가능성'만이 아니라 유통 속도인데, 그 이유는 검증은 느리고, 확산은 빠르기 때문에 기술은 윤리를 '가능하게'도 하지만, '불가능하게'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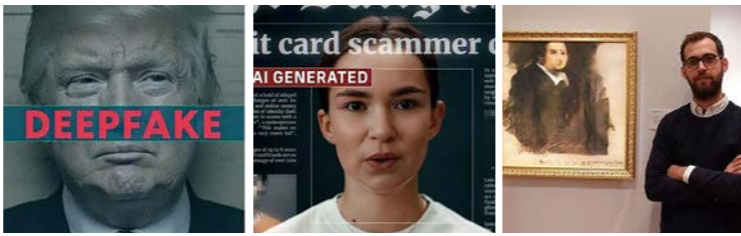


교황의 DEEPFAKE 이미지 가짜뉴스·허위정보가 손가락 터치로 퍼지는 이미지

AI 기술이 새로운 미학을 만들었다

AI의 등장은 사진 미학을 본질적으로 여섯가지 특징으로 재편했는데, **첫째** 과도한 선명함(ultra clarity)으로, AI 이미지는 인간의 눈보다 '모델이 학습한 선명함'을 우선으로 한 결과, 흔들림, 입자, 우연한 흐림 등 사진적 불완전성이 제거되고, '완성된 표면'이 기본값이 되었으며, **둘째** 비현실적 사실감(hyperreal)으로,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가 '사진적 표정'을 통계적으로 최적화하기 때문으로, AI는 현실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럴듯해 보이는 규칙을 합성하고, **셋째** 확률적 조합(Probabilistic Aesthetic)으로, AI 미학은 필연적으로 '평균적 설득력'을 지향하는데, 그럴듯함이 확률로 계산될 때, 미학은 독창성보다 안정적 설득에 기울기 쉬우며, **넷째** 지표성 부재로, 현장 접촉이 없기에, 이미지가 강렬해도 '있었다'의 무게가 다른데, 이 부재는 결합일 수도 있고, 새로운 자유일 수도 있고, **다섯째** 시간 없는 시간성으로, AI의 '순간'은 셔터가 아니라 계산 결과로, 사진의 시간 압력이 약해지고, 대신 '그럴듯한 순간'이 강화되며, **여섯째** 주체성 없는 시선으로, AI는 몸(결과물)이 없는데, 몸이 없다는 것은 곧 윤리의 자리도 약해진다는 뜻이며, 누가 책임지는가? 라는 질문이 AI 미학의 핵심 윤리 질문이 되는데, AI는 '카메라의 눈'이 아니라 '데이터의 눈'으로 세계

를 보기 때문에 새로운 미학의 발생 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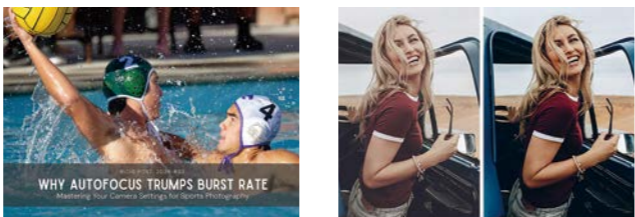


트럼프대통령 AI 생성 머그샷 이미지 AI generated 표기가 붙은 얼굴 이미지 초기 AI 초상화 작업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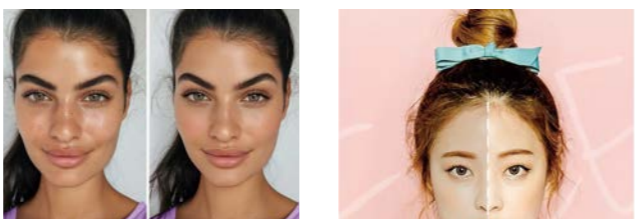
기술·미학의 상호 결정 구조

기술이 미학을 결정하지만, 동시에 미학도 기술을 결정하는데, 이 순환은 매우 현실적으로, 포토저널리즘이 고감도/AF/연사 발전, 영화적 색감이 LUT/필름 시뮬레이터/컬러 사이언스 발전, 셀카 문화가 전면 카메라/보정 알고리즘 발전, '실사 AI' 욕망이 더 그럴듯한 생성 모델이 발전되었다.

즉, 미학은 기술의 '시장 요구'가 되고, 기술은 미학을 '기본값'으로 배포되는 순환이 반복될수록, 미학은 점점 기술에 의해 규범화된다.



스포츠의 AF-연사 이미지 LUT 전후 비교 이미지



셀카 필터 전후 이미지 보정 알고리즘이미지

이미지 시대의 핵심 명제

기술은 사진의 형태를 만들고, 사진의 형태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규정하는데, 그 이유는 기술은 단순한 조작 수단이 아니라 미학적·인식론적·정치적·윤리적 구조의 핵심 축으로, 기술이 미학을, 기술이 인식을, 기술이 윤리를, 기술이 정치성을 만든다. 따라서 사진의 미래는 '감성의 미래'가 아니라, '기술 조건의 미래'인데, 그 기술 조건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이미지 시대 사진가의 핵심 역량이 된다.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07995

30만원으로
전시초대도, 사진작품도 게재

2023. 12. 06. PM.15:00
I · N · V · I · T · E

© Yoo Su Chan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6년 1차 이사회 결과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 총원 85명, 출석 68명, 위임 9명

출 석 :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선종백, 백만중, 이항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김명옥, 김문호, 김부연, 김삼택, 김서윤, 김양호, 김영록, 김옥진, 김윤정, 김재업, 김정금, 김종근, 김철수, 김화연, 조성만, 박건태, 박경서, 박석관, 박승호, 박인호, 박해섭, 백승익, 서효석, 설병갑, 손병호, 손석윤, 신경애, 오만태, 우숙자, 윤판문, 이내고, 이막래, 이명수, 이상영, 이성록, 이연숙, 이재수, 이점용, 이종석, 이창훈, 이창희, 이호규, 이흥기, 임만덕, 임성동, 장창근, 정연수, 정재문, 정종관, 조월신, 최복수, 최성용, 최연근, 최영태, 최임순, 하봉걸, 한용상, 한재원, 한희동, 황익출 이사

위 임 : 김동철, 김복순, 박만석, 송인호, 오명숙, 윤보상, 이윤순, 전태만, 정홍선 이사

참 석 : 이경래 감사

1. 성 원 보 고 - 총원 85명 중 참석 68명, 위임 9명으로 성원
2. 개회인사말 - 유수찬 이사장
3. 전차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김옥진, 김윤정 이사 / - 경과보고 : 김형준 사무처장

[경과보고]

- 2026. 02. 28. 제65차 정기총회
- 2026. 03. 06. 협회-서울경찰청 MOU 체결
- 2026. 03. 20. 사진예술대학 제6기 작가과정 개강

4. 안 건

1) 이사 보선의 건 - 승 인

- 성 명 : 김종근 (경남지회장, 진주지부)
- 입 회 일 : 1995년 1월 21일

2) 제65차 정기총회 결과 보고의 건 - 사무처장 보고

| | |
|---|--|
| 1. 정기총회 : 2026년 2월 28일(토) 13시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층 공연장 | 3) 대손상각 처리의 건 - 2021년분 미수 회비 78,150,000원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에 대해 출석회원 2,993명 중 찬성 2,986 반대 7로 승인 |
| 2. 성원보고 : 총 원 9,028명 중 현장출석 571명, 위임출석 2,422명 | 4) 발전기금 관리규정 개정 및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의 승인의 건 - 출석회원 2,993명 중 찬성 2,955 반대 38로 영구 발전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5억원 출연(장학기금 3억 2천만원, 발전기금 1억 8천만원)을 승인 |
| 3. 총회안건 : | 5) 기타의 건 - 사진대학 설립 구상 논의, 제6기 작가과정 모집 안내 |
| 1) 감사보고 및 2025년 결산 승인의 건 - 결산 승인에 대해 출석회원 2,993명 중 찬성 2,991 반대 2로 승인 | |
| 2)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출석 회원 2,993명 중 찬성 2,991 반대 2로 승인 | |

3) 제44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위원 추천의 건

- 이사회 추천 운영위원 선정을 이사장에게 위임

4) 제44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및 2026 PASK Awards 개최의 건

① 제44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 승 인

- 기 간 : 26년 6월 4일(목)~29일(월) / 장 소 : 동강사진박물관, 영월문 화예술회관

② 2026 PASK Awards - 승 인

- 일 시 : 26년 6월 13일(토) 오후 2시 / 장 소 :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5) 전국 임원 워크숍 개최의 건 - 승 인

- 일 시 : 26년 6월 26일(금)~27일(토) / 장 소 :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대 상 : 임원, 운영자문위원, 지회·지부장, 분과위원장

6) 2026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개최의 건

- 촬영대회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5월 9일(토) 개최하는 일정으로 변경하고,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7) 사업 인준의 건

- ① 단종문화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신규) - 승 인
- ② 개심사지 오충석탑 국보승격 기념 예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신규) - 승 인
- ③ 2026 통영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재승인) - 승 인
- ④ 2026 함양관광사진 공모전 (재인준) - 승 인

8) 규정개정건의 건

■ 도 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 승 인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1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도 지회에 소속된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2016.07.21.개정) | 제1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도 지회에 소속된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도 지회 권역의 아래 회원은 소속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2026.03.26.개정) ① 도지회 감사 ② 본부 임원 및 감사 ③ 위원장 (운영자문위원회, 초대·추천작가위원회, 교육전문위원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
| 제28조 (선거공고) ① 선관위원장은 차기 지회장의 선출을 선거 30일 이전까지 도(道)내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 제28조 (선거공고) ① 선관위원장은 차기 지회장의 선출을 선거 30일 이전까지 도(道)내 전회원에게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
| 사유 : 협회 규정 변경 안내 및 이사회 결과 전달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 가능자 명시, 도지회 선거공고 대상 변경 | |
|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 협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2024년 9월 26일 기준으로 연임 중인 도지회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해 차기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 3. 본 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1. 좌 동 2. 좌 동 3. 본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광역시 운영규정 - 승 인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23조 (구성)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부 임원 및 지회감사는 소속한 지회의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 제23조 (구성) 간사회는 지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 소속의 아래 회원은 해당 지회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2026.03.26.개정) ① 지회 감사 ② 본부 임원 및 감사 ③ 위원장 (운영자문위원회, 초대·추천작가위원회, 교육전문위원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
| 사유 : 협회 규정 변경 안내 및 이사회 결과 전달 등을 위한 간사회 참석 가능자 명시 | |
|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2013.10.16.개정) 2. 본 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1. 좌 동 2. 본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지부 운영규정 - 승인

| 개정 전 | 개정 후 |
|--|---|
| <p>제23조 (구성)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부 임원 및 지부감사는 소속한 지부의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p> | <p>제23조 (구성) 간사회는 지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부 소속의 아래 회원은 해당 지부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2026.03.26.개정)</p> <p>① 지부 감사 ② 본부 임원 및 감사 ③ 위원장 (운영자문위원회, 초대·추천작가위원회, 교육전문위원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p> |
| <p>사유 : 협회 규정 변경 안내 및 이사회 결과 전달 등을 위한 간사회 참석 가능자 명시</p> | |
| <p>부 칙</p> <p>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10.16.개정)</p> <p>2. 본 규정 제32조 ①항은 22년 12월 1일 이후 공고된 모든 지부장 선거에 적용한다.</p> <p>3. 본 규정은 2026년 1월 2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p> | <p>부 칙</p> <p>1. 좌 동</p> <p>2. 좌 동</p> <p>3. 본 규정은 2026년 3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p> |

9) 광주지회 관련 재심 징계 확정 건

- 광주지회 윤판문 : 경고 (확정일 : 2026년 3월 26일)
- 광주지회 신종천 : 정권 1년 (확정일 : 2026년 3월 26일)
- 광주지회 김팔명 : 경고 (확정일 : 2026년 3월 26일)
- 광주지회 박종운 : 경고 (확정일 : 2026년 3월 26일)

- 광주지회 최현동 : 경고 (확정일 : 2026년 3월 26일)
- 광주지회 황금동 : 경고 (확정일 : 2026년 3월 26일)

10) 회원 징계의 건

- 안동지부 권선자 : 징계규정 제20조 3항에 의거 추후공시

11)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의 건 - 승인

| 번호 | 성 명 | 취득내역 | 상장점수 | 지역 | 비고 |
|----|-----|--|------|----|---------|
| 1 | 이목규 | 특선 2회, 입선 2회, 지상전 우수작품상(2)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 13점 | 안동 | 전국심사자격자 |
| 2 | 이종석 | 입선 7회, 지상전 우수작품상(2)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 12점 | 홍성 | 전국심사자격자 |

12) 지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정권 인준의 건 - 승인

〈임 원〉

| | |
|----------------------------|-----------------|
| 강원도지회 : 지 회 장 - 장창근 | 수석부지회장 - 윤영돈 |
| 부지회장 - 조성호, 차재철 | 지회감사 - 최병남, 박태수 |
| 사무국장 - 유홍균 | 기록간사 - 김홍배 |
| 기획간사 - 이종진 | 사무간사 - 김광수 |
| 운영간사 - 임인선 | 재무간사 - 배현숙 |
| 진행간사 - 윤광수 | 행사간사 - 이춘차 |
| 홍보간사 - 김부오 | 섭외간사 - 신선영 |

| | |
|----------------------------|-----------------|
| 경북도지회 : 지 회 장 - 권영익 | 수석부지회장 - 최부해 |
| 부지회장 - 황영구, 권경애 | 지회감사 - 김춘도, 박영섭 |
| 사무국장 - 임시호 | 기획간사 - 황완구 |
| 기록간사 - 진광준 | 재무간사 - 김정자 |
| 업무간사 - 박상화 | 홍보간사 - 방춘매 |
| 사업간사 - 오기석 | 대외협력간사 - 권실건 |
| 전남도지회 : 지 회 장 - 임성동 | 수석부지회장 - 김철수 |
| 부지회장 - 장현종, 양성근 | 지회감사 - 이경래, 김중호 |

| | |
|-----------------------------|-----------------|
| 사무국장 - 백남태 | 기획간사 - 조규운 |
| 재무간사 - 정승조 | 사업간사 - 강성삼 |
| 충남도지회 : 지 회 장 - 이종석 | 수석부지회장 - 최근태 |
| 부지회장 - 편선환, 신영섭 | 지회감사 - 이동규, 이해경 |
| 사무국장 - 장병수 | 재무간사 - 임미선 |
| 기획간사 - 이상영 | 운영간사 - 조주희 |
| 홍보간사 - 가대현 | 사업간사 - 정희철 |
| 진행간사 - 박종환 | 섭외간사 - 이기준 |
| 기록간사 - 이준구 | 총무간사 - 한현정 |
| 충북도지회 : 지 회 장 - 김대중 | 지회감사 - 강경구, 박상문 |
| 구로구지부 : 지 부 장 - 신용식 | 부지부장 - 안익식, 조춘호 |
| 지부감사 - 박유자, 이덕기 | 사무국장 - 이병걸 |
| 총무간사 - 박명애 | 재무간사 - 윤옥 |
| 사업간사 - 정규영 | 기록간사 - 김향라 |
| 홍보간사 - 김귀순 | |
| 금천구지부 : 촬영간사 - 배선태 | |
| 광진구지부 : 지부감사 - 김태민 | 행사간사 - 옥정숙 |
| 노원구지부 : 지 부 장 - 이은순 | 부지부장 - 박준홍 |
| 지부감사 - 서정길, 허정 | 사무국장 - 유경숙 |
| 기획간사 - 홍성자 | 총무간사 - 홍성자 |
| 홍보간사 - 고미자 | |
| 동대문구지부 : 지 부 장 - 한종욱 | 부지부장 - 정해용 |
| 지부감사 - 권재화, 박찬영 | 재무간사 - 김오옥 |
| 진행간사 - 김인응 | 사업간사 - 이수천 |
| 협력간사 - 최창식 | 진행간사 - 김운중 |
| 홍보간사 - 김숙영 | |
| 마포구지부 : 기록간사 - 김숙자 | 정보간사 - 이규운 |
| 촬영간사 - 김형식 | |
| 송파구지부 : 수석부지부장 - 최혜순 | 부지부장 - 이석준 |
| 기획간사 - 김학수, 서상철 | 교육간사 - 김태영 |
| 사업간사 - 황점숙 | 행사간사 - 김태중 |
| 양천구지부 : 지부감사 - 국향숙 | 사무국장 - 이미영 |
| 용산구지부 : 지 부 장 - 김상수 | 지부감사 - 최해욱 |
| 종로구지부 : 수석부지부장 - 최혜순 | 사무국장 - 허경삼 |
| 지부감사 - 박승호 | |
| 중구지부 : 지 부 장 - 김부연 | 부지부장 - 이경희, 이규덕 |
| 지부감사 - 김승수, 한낙영 | 사무국장 - 차정순 |
| 재무간사 - 박성희 | 기록간사 - 강미순 |
| 홍보간사 - 김진숙 | 기획간사 - 김춘상 |
| 총무간사 - 김진석 | 섭외간사 - 김진수 |
| 세종지회 : 지 회 장 - 이종휘 | 부지회장 - 장동구 |

| | |
|----------------------------|-----------------|
| 지회감사 - 이호근, 추경식 | 사무국장 - 이상일 |
| 재무간사 - 최동용 | 기획간사 - 박희철 |
| 사업간사 - 조태섭 | 섭외간사 - 김지무 |
| 진행간사 - 김수잔, 유보경 | 홍보간사 - 강석순 |
| 기록간사 - 윤주영 | 촬영간사 - 오세관 |
| 울산지회 : 지 회 장 - 전태만 | 수석부지회장 - 강우순 |
| 부지회장 - 김경아 | 지회감사 - 고영상, 최영호 |
| 사무국장 - 김직년 | 재무간사 - 김춘화, 김희곤 |
| 홍보간사 - 양경석, 이규영, 김재석 | |
| 기획간사 - 김용휘, 김옥경 | |
| 사업간사 - 오병화, 박수용, 김찬일 | |
| 제주지회 : 수석부지회장 - 신준철 | 부지회장 - 송정훈 |
| 삼척지부 : 부지부장 - 최용기 | |
| 속초지부 : 지 부 장 - 유홍균 | 부지부장 - 안후상 |
| 지부감사 - 황병진, 김정희 | 사무국장 - 선종용 |
| 재무간사 - 배현숙 | 협력간사 - 이춘자 |
| 기록간사 - 이금자 | 섭외간사 - 강영진 |
| 홍보간사 - 장월선 | 기획간사 - 엄창운 |
| 촬영간사 - 문은자 | 정보간사 - 홍순복 |
| 국제간사 - 이상동 | |
| 춘천지부 : 홍보간사 - 정운교 | 기록간사 - 차준섭 |
| 홍천지부 : 지 부 장 - 강영복 | 부지부장 - 정희섭 |
| 지부감사 - 김진영, 차재철 | 사무국장 - 신정숙 |
| 총무간사 - 안영란 | 재무간사 - 차미경 |
| 홍보간사 - 이경재 | 사업간사 - 엄춘식 |
| 가평지부 : 사무국장 - 송경호 | |
| 광명지부 : 지 부 장 - 김중원 | 지부감사 - 이병일, 임동휘 |
| 군포지부 : 지 부 장 - 한재수 | 지부감사 - 한응열, 황진이 |
| 사무국장 - 이상경 | 재무간사 - 김채수 |
| 홍보간사 - 송두상 | 교육간사 - 윤순영 |
| 기획간사 - 정명렬 | 운영간사 - 김영숙 |
| 기록간사 - 조영수 | |
| 김포지부 : 지 부 장 - 백미화 | 부지부장 - 목진석, 이남식 |
| 지부감사 - 김성욱, 오경한 | 사무국장 - 임미영 |
| 총무간사 - 방윤정 | 재무간사 - 김경애 |
| 기획간사 - 김혜경 | 홍보간사 - 조효숙 |
| 사업간사 - 나상태 | 정보간사 - 이종욱 |
| 촬영간사 - 이성식 | 연구간사 - 민병덕 |
| 성남지부 : 지 부 장 - 선순남 | 부지부장 - 김점옥, 유연식 |
| 지부감사 - 한순규, 조현관 | 사무국장 - 이영숙 |
| 재무간사 - 노순국 | 행정간사 - 배연수 |

교육간사 - 이재철
 사업간사 - 이장환
 정보간사 - 김윤주
수원지부 : 총무간사 - 고향숙
안양지부 : 기록간사 - 최현욱
의왕지부 : 교육간사 - 박균희
의정부지부 : **지 부 장 - 김광수**
 부지부장 - 이범성
 사무국장 - 강양희
 기록간사 - 조신호
 연구간사 - 이옥순
 섭외간사 - 박익철
이천지부 : 사무국장 - 류연숙
파주지부 : **지 부 장 - 박상철**
 지부감사 - 백종걸
 총무간사 - 황정희
 홍보간사 - 김현진
 진행간사 - 공진희, 고희선
포천지부 : 홍보간사 - 김진철
화성지부 : **지 부 장 - 용환배**
 지부감사 - 김성태
 재무간사 - 박찬애
 기획간사 - 황금모
 사업간사 - 전진숙
 진행간사 - 김장겸, 박정진, 이창환
경주지부 : **지 부 장 - 문화영**
 지부감사 - 권영만, 안성호
 재무간사 - 김광민
 섭외간사 - 최돌문
 사업간사 - 김명수, 박해욱
 기록간사 - 서영희
김천지부 : **지 부 장 - 박병하**
 부지부장 - 백승환
 사무차장 - 최환철
 섭외간사 - 김희태
 사업간사 - 최일진
거창지부 : **지 부 장 - 최우현**
 지부감사 - 김병호
김해지부 : **지 부 장 - 이석근**
 지부감사 - 정한식, 박호철
 기획간사 - 이예성

촬영간사 - 조문기, 고강선
 홍보간사 - 이선화
 기록간사 - 김우연
수석부지부장 - 강돈영
 지부감사 - 서경자, 정순자
 사업간사 - 박영희
 문화간사 - 홍성연
 정보간사 - 이용욱
 홍보간사 - 이서현
 부지부장 - 박상용
 사무국장 - 송원용
 재무간사 - 박환숙
 기록간사 - 최미규
부지부장 - 박상용
 사무국장 - 노소남
 촬영간사 - 김영기
 섭외간사 - 류예령
 부지부장 - 김도형, 한규환
 사무국장 - 조경천
 홍보간사 - 이두찬
 기획간사 - 정기철
 진행간사 - 박수현
부지부장 - 김수원, 김동수, 김동철
 지부감사 - 강재언
 재무간사 - 최현주
 홍보간사 - 서현호
 섭외간사 - 김영종
부지부장 - 우광국, 신형균
 사무국장 - 손혜린
 사업간사 - 허안, 김광주
 기획간사 - 이재복
 연구간사 - 김연수, 이택진
부지부장 - 이장열, 조은자

사업간사 - 전창일
 정보간사 - 윤송희
수석부지부장 - 유문재
 부지부장 - 이상복
 지부감사 - 김은연, 김영환
 사무국장 - 이장희
 재무간사 - 손순애
 섭외간사 - 박성희
 사업간사 - 김상구
지 부 장 - 석도상
 부지부장 - 권영일, 이명기
 사무국장 - 권미라
 사무처장 - 김춘희
 지부감사 - 전종구, 윤한대
 기획간사 - 곽동원
 재무간사 - 신현석
 업무간사 - 노귀주
 사업간사 - 황관숙
 섭외간사 - 오형규
 홍보간사 - 이정호
 진행간사 - 신애리
부지부장 - 박종운, 이현채
 부지부장 - 이상훈
 진행간사 - 김종성
 섭외간사 - 이명수
 사업간사 - 오종태
 홍보간사 - 박상규
 업무간사 - 조광규
부지부장 - 이현석
 사무국장 - 류해상
 사업간사 - 권순혜
 기획간사 - 공경준
부지부장 - 문봉재
 사무국장 - 서인석
 촬영간사 - 한 운
부지부장 - 김수원, 김동수, 김동철
 기획간사 - 조규운
 사업간사 - 김영제
 기록간사 - 박순옥
 정보간사 - 이연이
부지부장 - 한현석, 방성공
 재무간사 - 이선희
 홍보간사 - 김설장, 최상호
 진행간사 - 이미자, 정영은
 기록간사 - 박은영, 강동근

지부감사 - 김광진, 이혜경
 사무국장 - 이정복
 재무간사 - 이남준
 홍보간사 - 배재환
 사업간사 - 박천명
 기획간사 - 송순선
기록간사 - 이광수
부지부장 - 임상순
 사무국장 - 임미선
 사업간사 - 김상철
부지부장 - 임복규
 사무국장 - 임미선
 재무간사 - 이계석
 사업간사 - 김상철
 홍보간사 - 김영방
부지부장 - 이기준
 수석부지부장 - 이기준
 지부감사 - 이성호, 방경애
 재무간사 - 송은영
 사업간사 - 김금영
 촬영간사 - 설용환
사무국장 - 김형주
부지부장 - 한현정
 사무국장 - 장병수
 총무간사 - 이달주
 사업간사 - 이재일
 촬영간사 - 신경수
 정보간사 - 이종길
부지부장 - 김신일
 사무국장 - 김신일
 지부감사 - 양지연, 장경순
 재무간사 - 송상구

경기광주 : 조은희(정)
 구 리 : 고용란(정), 김용일(정), 노숙정(정), 변현원(정), 송미경(정), 송진경(정), 이경종(정), 함은희(정)
 안 산 : 김영은(정)
 여 주 : 김덕수(정), 남기화(정)
 화 성 : 김현수(정)
 경 산 : 황재건(정)
 경 주 : 방정재(정), 백규열(정), 이동숙(정), 이명규(정), 이상철(정), 최두현(정)
 구 미 : 강점자(정), 임재수(정)
 합 천 : 박은미(정)
 고 창 : 권경용(정)
 완 주 : 정덕우(정)
 여 수 : 임재울(정)
 음 성 : 최병학(정)
 제 천 : 김용재(정), 박기동(정), 박상석(정), 박성숙(정), 이종찬(정), 조성만(정)
 진 천 : 신춘화(정), 임정희(정)
 충 주 : 이종오(준)
 시 드 니 : 서울식(정)
<승 격> - 5명
 광 주 : 김민호
 남 원 : 김소연
 계 룡 : 박광룡
 제 주 : 현연심
 영 월 : 이순복
<복 권> - 6명
 관 약 구 : 정종삼 - 장기회비미납 정권 / 완납복권
 성 동 구 : 주상준 - 장기회비미납 제명 / 완납복권
 광 주 : 김영식 - 장기회비미납 정권 / 완납복권
 대 구 : 김성두 - 장기회비미납 정권 / 완납복권
 부 산 : 김상덕 - 자퇴 / 완납복권
 연 천 : 이종만 - 장기회비미납 제명 / 완납복권
<정 권> - 4명
 양 산 : 최국현 - 장기회비미납 / 지부 제명요청
 창 원 : 박종규 - 장기회비미납 / 지부 정권요청
 심영희 - 장기회비미납 / 지부 정권요청
 유순옥 - 장기회비미납 / 지부 정권요청

13)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의 건 - 보류 2건 제외하여 승인

| 번호 | 강사 | 자격번호 | 기관명 | 지역 | 강좌명 | 시수 |
|------------------|-----|---------------|-------------------|----|------------------------|----------|
| 1 | 고기태 | 제2025-471031호 | 문경시문화원 | 문경 | 사진의 기초 | 13주/30시간 |
| 2 | 김시묵 | 제2021-0127호 | 성남 미디어센터(성남 문화재단) | 성남 | 카메라로 그리는 추상화 | 12주/30시간 |
| 3 | 김장현 | 제2025-471010호 | 홍천문화원 | 강원 | 사진인문학 | 32주/64시간 |
| 4 | 류민형 | 제2024-0011호 |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 부산 |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와 후반작업 | 12주/36시간 |
| 디지털 네거티브의 현상과 인화 | | | | | 12주/36시간 | |
| 6 | 유예숙 | 제2023-지도3기29호 | (사)한국예총 포천지회 | 포천 | 2026 제10기 포천예술대학(사진) | 17주/34시간 |
| 7 | 이종휘 | 제2023-지도3기40호 | 세종시 대평동 행정복지센터 | 세종 | 사진학개론, 사진촬영, 편집, 포트폴리오 | 16주/32시간 |
| 8 | 이동규 | 제2023-지도3기34호 | 예산문화원 | 예산 | 디지털카메라 | 16주/32시간 |
| 9 | | | | | 디지털카메라(중급) | 16주/32시간 |
| 10 | 최덕환 | 제2021-0203호 | 빛담기획(아카데미) | 익산 | 사진예술1 | 15주/30시간 |
| 11 | | | | | 사진예술2 | 15주/30시간 |
| 12 | 최영태 | 제2024-0293호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광주 | 사진 아카데미(기초반) | 15주/30시간 |
| 13 | | | | | 사진 아카데미(중급 마스터반) | 15주/30시간 |

14) 기타의 건

① 입회점수 인정 대회 인준비 조정

- 이사회에서 정해진 내용을 전국 지회, 지부에 공문으로 통지

② 장학재단 설립 진행 관련 안내

③ 신입 및 이적 회원 관련 안내

- 지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신입 회원의 입회 신청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가하고 이를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함
- 회원 이적은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전적지부와 이적지부 연 회비를 절반씩 납부하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전적 지부에만 해당년도 회비를 완납해야 함

<대회 인준비 조정안>

| 구분 | 기준 | 금액 | 내용 |
|----------|---------------|---------|--|
| 공모전 | 일반공모전 | 80만원 | · 한국사진 2회까지 광고 · 최고상권에 따른 구분 없음 · 일반공모전 제외한 공모전은 1회만 광고 지원 |
| | 관광·기획사진 공모전 | 400만원 | · 한국사진 2회까지 광고 |
| 촬영대회 | 일반촬영대회 | 80만원 | · 한국사진 2회까지 광고 · 최고상권에 따른 구분 없음 |
| | 축제성촬영대회 | 400만원 | · 한국사진 2회까지 광고 |
| 시·도 사진대전 | · 광역 시·도 사진대전 | 100만원 | · 한국사진 1회 광고 |
| 외부대회 | 입회점수 승인대회 | 400만원 | · 한국사진 2회 광고 지원 |
| | 입회점수 미승인 대회 | 월 200만원 | · 한국사진 광고 게재 월은 선택 · 외부 공모전 광고는 동일 진행 |

제6기 사진예술대학 개강식 개최
유수찬 이사장 “체계적 사진교육, 창작역량 강화해야”



개강식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사진예술대학 제6기 사진작과과정 수강자들

(사)한국사진작가협회는 2026년 3월 20일(금)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강의실에서 제6기 사진예술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강식은 사진예술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회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김요한 교육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시묵 부이사장,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백승의 총동문회 회장, 이막래 이사, 강돈영 이사, 김형준 사무처장을 비롯해 2기 이연숙 회장, 3기 윤홍선(전 회장), 4기 이석준 회장, 5기 장일미 회장 등이 참석해 제6기 수강생들의 선배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갔다.

유수찬 이사장은 사진예술대학 운영과 관련해 사진예술 교육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교류를 통해 회원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강식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수강생들이 자기소개를 통해 사진에 대한 관심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향후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사진예술대학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사진인 양성과 생활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협회-서울경찰청, 사진 예술 교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찰청에 회원 작품 걸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및 참석자들
(사진 맨 왼쪽부터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이사, 유수찬 이사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김양평 고문, 김형준 사무처장, 송수철 서울경찰청 경무관)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촬영을 하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사진 왼쪽)과 유수찬 이사장(사진 오른쪽)



감사패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유수찬 이사장, 김양평 고문(사진 맨 왼쪽부터 유수찬 이사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김양평 고문)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와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이 지난 3월 6일(금) 서울경찰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경찰청 내 문화 공간을 활성화하고, 사진 예술을 매개로 한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측은 협약식에서 사진 작품 전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 교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 측 유수찬 이사장, 김양평 고문,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이사, 김형준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박정보 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들에게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고 청사 내 수준 높은 사진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에 유수찬 이사장은 “한국 사진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작품들이 경찰청에 전시됨으로써 사진 예술의 대중적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업무협약식 전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환담을 나누는 유수찬 이사장



업무협약 후 기증된 대형 사진작품을 관람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김양평 고문



양기관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사진 왼쪽)과 유수찬 이사장(사진 오른쪽)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라 협회는 향후 서울경찰청 청사 내 사진 작품 전시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향후 서울경찰청 내 마련된 서경갤러리를 활용한 기획 전시를 진행하는 등 협력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소속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엄선하여 지원하고, 서울경찰청은 전시 공간 및 제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행정 서비스와 예술이 함께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전 유수찬 이사장과 김양평 고문은 본인의 대형 사진 작품을 서울경찰청에 기증했다. 기증된 작품은 청사 내 주요 공간에 상시 전시되어 공간의 격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유수찬 이사장과 김양평 고문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대외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사진 작가들의 전시 기회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지회, 사진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실무 강좌 개최

시 시대에 맞는 창작 방향 제시



이수연 강사 강의를 청취하는 참석자들 전경모습



인사말을 하는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정재문 지회장, 본부이사)는 사진가들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실무 교육을 마련했다. 지난 3월 7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사진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실무 활용 강좌'를 개최하고, 경기도 31개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사진공모전과 전시, 작가 활동에서 중요한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진가이며 교육자인 이수연 자문위원(전.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이 특별 강연을 맡았다.

정재문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진 공모전과 작품 활동에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최근 주제와 맞지 않는 연작 구성이나 형식적인 작품 출품 등 아쉬운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작품 구성 방식과 창작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강의를 통해 경기도 사진작가들의 작품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경기도사진대전과 향토사진작가전 역시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작품의 주제 설정과 연작 구성, 포트폴리오 편집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작품의 스토리와 흐름을 갖춘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과 공모전 및 전시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 참석한 한 참가자는 "공모전 출품이나 전시 준비 과정에서 막연했던 포트폴리오 구성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작품을 정리하고 작가로서 방향성을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는 사진작가들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토뉴스_박종욱 기자 (발체_https://www.phot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0)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6년 3월말 현재)

- 27대까지적립금(2017.2월말): 798,001,466
- 28대까지적립금(2020.2월말): 218,172,424
- 29대까지적립금(2023.2월말): 93,715,796
- 30대적립금(23.3월~26.3월말): 163,197,322
- 계 : 1,273,087,008 (a)**

○ 입회자발전기금계 : 356,000,000 (3,355명/발전기금100,000/인)

- ① 2017년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 ② 2018년계 : 53,200,000
- ③ 2019년 계 : 100,900,000
- ④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 ⑤ 2021년 계 : 27,700,000
- ⑥ 2022년 계 : 32,200,000
- ⑦ 2023년계 : 19,600,000
- ⑧ 2024년 계 : 25,900,000
- ⑨ 2025년 계 : 30,500,000
- ⑩ 2026년 계 : 13,700,000
- ▷ 2026년01월(75명) : 7,500,000
- ▷ 2026년03월(62명) : 6,200,000

○ 기타 계 : 119,085,542

-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 81,623 (29대 누계)
- 62,552 (30대 누계)
-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 17,034,173 (29대 누계)
- 65,434,770 (30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 운용 계 : 400,000,000(b)

-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873,087,008 (a-b)

2026 전국 사진강좌 안내(4~5월)

| 사진강좌 | 지회.지부 | 강좌일시 | 장소 |
|----------|-------|-------------------|--------------------|
| 대구전국사진강좌 | 대구지회 | 4월 11일(토) 오후1시-5시 | 대구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
| 의왕전국사진강좌 | 의왕지부 | 4월 25일(토) 오후1시-5시 | 계원예술대학교 파라다이스 다목적홀 |
| 남원전국사진강좌 | 남원지부 | 5월 02일(토) 오후2시-6시 |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 |
| 제천전국사진강좌 | 제천지부 | 5월 16일(토) 오후1시-5시 | 의림지역사박물관 지하 강의실 |
| 광주전국사진강좌 | 광주지회 | 5월 30일(토) 오후2시-6시 | 방울소리 공연장 지하 |

바로잡습니다

3월호 게재된 장학기금 기부 이희수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잘못 기입하여 바로잡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상수(동해) 회원 모친별세
별세 : 2026년 3월 4일 발인 : 2026년 3월 6일

회비납부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5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 지회,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 연회비 10만원 본 협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회비 문의 : 재무팀 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로 제작)
-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작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비의섬 제주

제주도 촬영지도 권기감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촬영 지도안내
 제주도 풍경 및 장노출 지도 촬영시간 1일 8~10시간 기준
 1명~3명 지도비 20만 원 삼각대 무료대여 (단체는 별도문의)
 "개인전시를 위한 (포토스토리)1년 작업 촬영지도 별도문의"

축하합니다 (3월 입회자)



문주철(특별회원)



김오경(강남구, 정)



정택국(강남구, 정)



이미정(강서구, 정)



한두열(광진구, 정)



오선희(구로구, 정)



진옥인(구로구, 정)



김국현(동작구, 정)



김향자(송파구, 정)



윤병기(송파구, 정)



추기호(송파구, 정)



임택(양천구, 정)



신재한(영등포, 정)



김혜숙(용산구, 준)



나점선(용산구, 준)



이복득(용산구, 준)



유주원(용산구, 준)



전운정(용산구, 준)



허학범(은평구, 정)



김명숙(대전, 정)



정명준(대전, 정)



한순희(부산, 정)



박진순(울산, 정)



강평관(제주, 정)



권순매(영월, 정)



조은희(경기광주, 정)



고용란(구리, 정)



김용일(구리, 정)



노숙정(구리, 정)



변현원(구리, 정)



송미경(구리, 정)



송진경(구리, 정)



이경종(구리, 정)



함은희(구리, 정)



김영은(안산, 정)



김덕수(여주, 정)



남기화(여수, 정)



김현수(화성, 정)



황재건(경산, 정)



방정자(경주, 정)



백규열(경주, 정)



이동숙(경주, 정)



이명규(경주, 정)



이상철(경주, 정)



최두현(경주, 정)



강정자(구미, 정)



임재수(구미, 정)



권경용(고창, 정)



정덕우(완주, 정)



임재울(여수, 정)



최병학(음성, 정)



김용자(제천, 정)



박기동(제천, 정)



박상석(제천, 정)



박성숙(제천, 정)



이종천(제천, 정)



조성만(제천, 정)



신은화(진천, 정)



임정희(진천, 정)



이중오(충주, 준)



서울식(시드니, 정)



박은미(합천, 정)



전시일시 2026년 5월 12일(화) ~ 5월 17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제9전시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전시작가 김영록(010-8594-0606)

사진(Photography)의 어원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1830년대 윌리엄 헨리 폭스탈벗이 '광학적 드로잉'을 만들었던 카메라 없는 사진 기술의 초기 시대를 모티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포토그램으로 만들어 보았다. <중략>

이 사진 작업은 분주한 현대 사회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행위이다. 인화지 위로 떨어지는 햇살의 무게를 느끼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빛의 궤적을 종이 위에 붙잡아 둔다.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숨결을,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었던 기다림의 가치를 전달하기 바랄 뿐. <작가노트 중에서>

흐르고 얽히다 박영숙 개인전

나는 늘 창문 너머 자연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말라버린 덩굴이 나무에 감긴 모습을 마주했다.
 굳어진 거인의 초상 같기도 하고,
 오래된 성채 같기도 한 압도적인 존재, <중략>



흐르고 얽힌 흔적과 잔상은
 삶의 순환으로 남아
 저마다 다른 울림으로 이어진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5월 12일(화) ~ 5월 17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제8전시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전시작가 박영숙(010-5226-2373)

<13년의 시간과 시선> 베트남 일상·풍경, 밀양에 오다 밀양문화관광재단 기획초대전 이상복 사진전

베트남에서 8년을 거주하고, 이후에도 5년 동안 자주 오가며 이어진 13년의 시간은 나에게 '사진을 찍는 시간' 이라기보다 '살아가는 시간'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풍경과 기후,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고, 카메라는 어느새 그 일상 곁에 조용히 놓이게 되었다. <중략>

이 전시는 한 나라를 설명하려는 자리가 아니다. 다만 그곳에서 머물렀던 한 사람의 시간과 시선을 조용히 나누고자 한다. 이 사진들이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또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게 다가가 서로 다른 기억과 시간이 잠시 겹쳐지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4월 14일(화) ~ 4월 26일(일)
 전시장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전시실
 (관람시간 10:00~18:00, 휴관일 4월 20일(월))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12)
 개 전 식 2026년 4월 17일(금) 18:30
 전시후원 밀양문화관광재단
 전시작가 이상복(010-5183-2000)

바람난 미술 - 디지털아트를 품다 제12회 한국디지털아트 디플렉기전 2026



이번 전시는 "AI+Digital ART"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아트가 우리 삶과 예술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각 아티스트들은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하여 생겨나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 특히 많은데, 디플렉 회원들의 상상력과 시의 계산 능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전시일시 2026년 5월 1일(금) ~ 5월 6일(수)
 전시장소 헤화아트센터 1층 전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개 전 식 2026년 5월 2일(토) 오후 5시
 참여작가 최임순(회장) 강미순 강성희 강옥순 국향숙 권무덕
 권미숙 김용순 김혜경 박지선 백승의 백진현 오건호
 윤홍선 은영옥 이병화 이숙현 조영옥 조월신 지혁
 최상귀 최혜순 홍종혜
 관람 및 회원가입 문의 최상귀(010-8138-300)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아트의 매력을 느끼시고, 아티스트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Kodia" 한국디지털아트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목표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많은 격려 바랍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고향의 숨결을 담은 예술의 여정

임근영 개인전

일흔의 나이에 이르러 나는 다시 고향 전남 화순을 바라본다. 화순 13개 읍·면의 전경을 중심으로, 그 땅의 자연과 사람을 소재로 한 사진들을 모아 이번 개인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간 날 때마다 전국을 다니며 기록한 풍경과 인물 작품 또한 함께 전시하여, 나의 지난 세월과 시선을 한자리에 담아 내고자 한다. <중략>



일흔이라는 시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한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나는 빛과 사람, 그리고 고향의 숨결을 따라 걸으며 삶의 소중한 장면들을 기록해 나가고자 한다. 이번 개인전이 나의 감사와 다짐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4월 11일(토) ~ 4월 18일(토)
전시장소 어울림센터 갤러리 1F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40)
개 전 식 2026년 4월 11일(토) 오후3시
전시작가 임근영(010-5609-2122)



바람을 가르는 눈빛

문주철 개인전



전시일시 2026년 5월 6일(수) ~ 5월 12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0길 11-4(관훈동 30-1)]
전시작가 문주철(010-3885-0940)

사진을 시작한 지 어느덧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시간동안 카메라를 들고 자연을 찾아 산과 들을 다니며 수많은 순간들을 기록해 왔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사로잡은 존재는 바로 매였다. <중략>
어느 순간, 바람을 가르며 나타나는 매의 비상은 그 긴 기다림을 단번에 잊게 만들었다. 목표를 향해 번개처럼 떨어지는 순간, 바람을 가르며 다시 하늘로 치솟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매의 날카로운 눈빛은 늘 나를 압도했다.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셔터를 눌렀고, 그렇게 담긴 장면들은 오랜 시간 자연 속에서 바라보고 기다려 온 나의 기록이 되었다.

오랜 시간 자연 속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기다리며 담아온 나의 기록이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작가노트 중에서>

백련지에 비친 마음의 계절(一葉一花本來清淨)

한재원 사진전

백련지는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 여산법진(송광사 주지)



연지는 단지 물 위에 피어난 꽃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 잎의 연잎이 펼쳐지고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은 곧 무명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는 수행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중략>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연지의 사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피고 지는 모든 순간이 곧 도(道)이며 텅 빈 자리 또한 충만한 진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1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5월 6일(수) - 5월 16일(토)
전시장소 전주 한벽문화관 전시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개 전 식 2026년 5월 7일(목) 오후3시
2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5월 17일(일) - 5월 25일(월)
전시장소 백화도량 중남산 송광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바람의 땅, 빛의 기억 - 파타고니아

전남대학교 병원 기획초대전 '오기종 초대전'



전시일시 2026년 4월 6일(월) ~ 5월 3일(일)
전시장소 전남대학교병원 1동 1층 워크 갤러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시작가 오기종(010-8606-7899)

파타고니아의 새벽은 차갑고 거칠며, 그 안에 순수한 침묵이 깃들어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능선 위로 첫 햇살이 닿아 스며드는 순간, 거대한 자연은 형언할 수 없는 한 폭의 기도로 변모합니다. <중략>
이 경이로움 앞에서 기계적인 셔터를 누르기보다, 먼저 그 빛과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숨을 깊게 고릅니다. 빛이 이 세상을 깨우는 찰나, 세상은 소리 없이 가장 거대한 숨을 내쉬며 깨어납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 저 역시 그 숭고한 빛의 일부, 한 점의 미약하고도 완전한 존재가 되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풍경의 기록이 아닌, 파타고니아의 새벽이 제 영혼에 새겨 넣은 원초적인 울리와 경외감의 증거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연향을 그리다 정인식 개인전

연은 진흙 속에서 고요히 피어난다.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깊이와 시간이 함께 존재한다.



사진은 찰나의 빛을 기록하는 예술이다.
빛의 방향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순간마다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나는 빛을 기록하는 도구인 카메라를 통해 빛 너머에 흐르는 침묵을 담고자 하였다.

나의 시선은 꽃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시간 물과 바람, 그리고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조용한 순간을 프레임 속에 두고자 하였다.
(작가 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5월 20일(수) ~ 5월 26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6관
전시작가 정인식(010-3785-9699)

아바타II - AvatarII 김경수 온라인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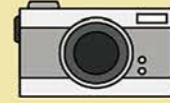
전시일시 2026년 2월 15일(일) ~ 3월 31일(화)
전시장소 갤러리 창 1관 (<http://gallerywindow.com/>)
관람시간 24시간 상시 운영
전시작가 김경수

어릴 적부터 나는 상상의 세계에 오래 머무는 아이였다. 손에 천 작은 군인 피규어 하나라도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냈고, 눈을 감으면 나는 군인이 되기도, 탐험가가 되기도 했다. 상상 속에서 나는 언제든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 습관은 성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힘든 하루 끝에 의자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 있으면, 어느새 또 다른 세계에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중략>

이번 전시는 내가 직접 구축한 온라인 전시장 '갤러리 창'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시범 전시이다. 물리적 공간을 벗어난 이 장소에서, 이미지는 더 이상 벽에 걸린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방식이 된다. 이 창을 통해 나의 아바타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세계를 향해 이동하고, 관객은 그 이동의 순간에 조용히 동참하게 된다. <작가노트 중에서>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2026 군포철쭉축제



제9회 군포 전국사진촬영대회



촬영기간: 2026. 4. 18(토) ~ 26(일) 접수기한: 2026. 5. 18(도착분)

대회장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철쭉공원 및 초막골 생태공원, 철쭉축제 축제장 일원

작품내용: 철쭉동산의 아름다운 풍경, 축제기간 중 공연 및 축제장 일대를 촬영한 작품, 행사장스케치(※축제기간: 2026. 4. 18 ~ 4. 26)

참가비: 30,000원(중식제공)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참가자격: 전국 사진애호가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인치 x 14인치(장정불요)

접수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우)1582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2층 군포예총(군포문화예술회관 내)

문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 지부장 010-5357-1521 | 사무국장 010-3313-8604

출품요령: 11R로 인화 후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우편번호기재),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접수기한: 2026. 5. 18(도착분)

심사일시: 2026년 5월 하순예정

심사장소: 추후공지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발표: 2026년 5월 하순 공개심사 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시상/전시: 추후공지

전시장소: 군포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입상 및 입선작은 발표일 7일 이내 원본필름 또는 이미지(디지털 300픽셀이상) JPG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0318834396@hanmail.net) 미제출시 상권취소

시상내역

| | | |
|-----|----|---|
| 금상 | 1점 | 군포시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은상 | 2점 | 군포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 동상 | 3점 | (사)한국예총군포지회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 가작 | 5명 | (사)한국예총군포지회 상장 |
| 장려상 | 5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장 상장 |
| 입선 |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장 상장 (총 출품작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

기타사항(유의사항)

- 입선이상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됨.
- 입상과 입선된 작품으로 인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한 드론사진과 작품의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수상작의 저작권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으며, 군포시 홍보 및 공익 목적 사업에 수장작을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작품이나, 합성작품(AI 또는 포토샵 활용)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 발견 시 상권이 취소되고 상장과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기타 문제점으로 발견 시 한국사진작가협회 징계규정에 의거 제재할 수 있음.
- 출품된 작품은 반출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시상 후 상장과 함께 발송함.
- 본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으로 본 공모전 요강을 숙지하였고, 이에 따른다는 것으로 간주함.

제 12회 고흥관광사진국사진공모전

“힘찬도약, 희망찬 고흥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사진여행”

접수마감 2026. 10.31.(도착분)
(입회접수 있음)

작품내용 고흥군 관내를 주제로 한 국내외 미발표된 사계절 사진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고, “지붕없는 미술관”인 고흥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사진

- ① **고흥10경**(팔영산 자연휴양림과 편백치유의 숲, 역사의 섬 소록도, 사계절 꽃피는 쑥섬, 예술의 섬 연흥도, 금산 해안경관과 거금생태숲, 천등산 봉수대, 나로우주센터와 편백숲, 남열 해안경관과 해수욕장,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분청문화박물관과 운암산 녹음길)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
- ② **고흥9미**(장어탕/구이, 서대회무침/조림, 유자술, 매생이국, 삼치회/구이, 전어회/구이, 모듬생선 숯불구이, 바지락 회무침/젓갱, 한우구이) 고흥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소재로 한 작품
- ③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우주항공축제, 유자축제, 불꽃축제, 드론쇼, 문화 및 예술제, 생활상, 섬, 해수욕장, 야경, 대교등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

작품규격 : 11×14인치 칼라 및 흑백사진
입상(선)작품은 디지털 원본 (긴쪽이 3,000픽셀이상) 파일을 발표 5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함

출품수 및 출품료 : 1인 6점 이내 / 2만원 **출품자격** : 제한없음

※ 출품작품 뒷면에 아래 내용을 기록한 출품표를 부착하여 제출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촬영장소, 촬영일시>

접수처 : 전남 고흥군 동강면 내대호수길 156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흥지부

문의처 : 지부장 010-5608-9600, 사무국장 010-4614-1614

- 시상내역**
- 금 상 1점 - 고흥군수 상장 및 작품매입비 | 100만원
 - 은 상 2점 - 고흥군의회 의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 각 50만원
 - 동 상 3점 - 고흥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 각 30만원
 - 가 작 5점 - 고흥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 각 20만원
 - 입 선 50점 - 고흥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 각 10만원

심사일시 : 2026년 11월 7일(토) 예정, 공개심사 **심사장소** : 고흥군문화예술회관 송순섭실

심사발표 : 2026년 11월 9일(월)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www.pask.net)

개전 및 시상일시 : 고흥아트센터, 12월 5일(토) 예정

작품반출 : 출품된 작품 및 낙선작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낙선작은 3개월 이내에 폐기함.

기타(유의사항)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입회기 유보됨.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동안 공익적인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에 사용할 수 있음.
- 향후 주최측은 수상작을 변형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작품집은 전시종료 후 개별 우편 발송.
- 출품된 작품 및 낙선작품은 반송하지 않음
- 입상, 입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5일 이내 제출하고, 금, 은, 동상 입상자는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30" x 20" 사진을 인화, 코팅 제출하여야 함.
(E-mail : paskgh@naver.com (미제출시 상권 취소))
- 금, 은, 동상, 가작의 입상으로 선정되면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상권은 인정하나 시상금은 "불우이웃돕 성금"으로 전달합니다.

2026년 함양관광사진 공모전

입회접수 인정(마감일 '26년 11월 20일(금)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간 2026년 11월 1일(일)~ 11월 20일(금) 도착

작품소재 함양군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예술, 축제 등을 담은 내용
※ 함양 8경 - 상림사계, 금대지리, 용추비경, 화림풍류, 칠선시류, 서암석불, 덕유운해, 대봉철쭉
※ 전통문화 - 정자, 서원, 물레방아, 사찰 등.
※ 축 제 - 함양산삼축제, 천령문화제, 꽃감축제 연암축제 등 지역축제 이 밖에 함양군의 관광자원 일체.

작품규격 11×14 사이즈 인화사진 및 디지털 파일(동시접수)
디지털 파일 제출처 - kmh9433@hanmail.net
(디지털은 1,000만 화소수 이상, 3000×4000 pixels 이상)
※ 함양 및 과도한 후 보정, 동일작, 유사작, 촬영대상이 함양군으로 판명되지 않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됨.

출품자격 제한 없음

출품수량 1인 5점 이내(2025년 1월 이후~현재 촬영사진)

출품료 2만원

제출방법 우편 및 직접방문

제출처 경남 함양군 함양읍 돌북 1길 18

작품심사 및 발표 2026년 11월 중

시상 및 전시 2026년 12월 중

유의사항

- 입상, 입선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 측에 있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드론 사진 접수자는 입상 시 허가증 첨부,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짐.

시상내역

| 입상구분 | 시상금 | 비고 |
|------|-------------|---------|
| 계 | 61점 1,200만원 | |
| 금 상 | 1점 200만원 | 상금 및 상장 |
| 은 상 | 2점 각 100만원 | 상금 및 상장 |
| 동 상 | 3점 각 50만원 | 상금 및 상장 |
| 가 작 | 5점 각 30만원 | 상금 및 상장 |
| 입 선 | 50점 각 10만원 | 상금 및 상장 |

문의처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승격 기념 예천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출품자격** 제한없음
- 출품료** 20,000원
- 작품내용** 예천군을 소재로 한 관광홍보 가치가 높은 미발표 작품
○ 개심사지 오층석탑 및 행사, 약포 정탁선생 500주년 행사 등
○ 자연경관, 향토문화, 축제, 생활상, 문화재, 각종 행사 등
- 작품규격** 칼라 및 흑백사진 11" x 14"
- 출품요령** 1인 6점 이내
- 접수처**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21번지 1층 진스튜디오
- 문의처** 지부장 010-6470-3386
- 접수마감** 2026년 11월 16일(월) 도착분
- 심사일시** 11월 중(세부사항 추후공지 예정)
- 시상일시** 추후 개별통보 예정
- 전시일시** 추후공지 예정
- 전시장소** 예천군 문화회관 전시실

시상내역

- 금상 1점** 예천군수 상장 및 작품매입비 100만원
- 은상 2점** 예천군의회 의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50만원
- 동상 3점** (사)한국예총 예천지회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30만원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예천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20만원
- 입선 40점내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예천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10만원

기타(유의) 사항

- 입상·입선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출력파일을 제출하지 않을시 상권 취소 됨.
단, 파일크기는 해상도 300DPI, 긴변 3,000픽셀 이상의 확장자 JPEG 파일을 개별통보 받은 지정메일로 제출 (필름인 경우 스캔 받은 이미지로서 디지털 파일과 크기가 같을 것)
- 수상작(입선이상)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주관측에 있으며 심사발표 후 주최측과 주관, 후원기관에서 기간 제한없이 수상작을 공익목적 전시, 책자제작,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시 상권 취소되며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수령한 상금도 반납하여야 함.
- 초상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컴퓨터 그래픽, 합성작품, AI이용 작품, 출품표상 기재사항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반납하여야 함.
- 상금 원천징수액 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입상자 본인부담
-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예천지부의 결정에 따르며, 상기일정은 주최측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2026년 제59회 단종문화제 전국사진촬영대회

행사기간 2026. 4. 24(금) ~ 4. 26(일)

- 행사기간 2026년 4월 24일 ~ 4월 26일
- 참가자격 전국사진 애호가
- 대회장소 제59회 단종문화제 행사장(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61-9, 동강둔치 촬영대회 부스)
- 촬영지역 제59회 단종문화제 행사장 전체, 영월군 일원
- 촬영내용 작품내용은 단종문화제 기간 촬영한 작품, 영월 10경, 영월의 숨은 명소와 영월의 자연과 지역 특색을 잘 표현하여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
- 참가비 및 출품비 20,000원(단, 중식 및 기념품 제공 없음)
- 접수마감 2026년 5월 13일(수) (도착분)
- 작품규격 11x14 inch (컬러 및 흑백) 4점 이내
-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출품표 부착(작품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1인 4점 이내)
- 작품접수 [우:2622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871-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 연락처 지부장 010-3353-6224 / 사무국장 010-4194-9004
- 심사일시 2026년 5월 16일(토) 13:00 ~ (예정)
- 심사장소 영월군청 대회의실(예정)
- 심사방법 시험 추천 심사위원, 공개심사
- 결과발표 2026년 5월 18일(월) 한국사협 홈페이지
- 시상내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시상내역 | 상장 | 작품구입비 |
|---------------|--------------------|-------------------|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100만원 |
| 은상 2점 |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50만원 |
| 동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장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30만원 |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장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20만원 |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장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10만원 |
| 입선 (출품작20%이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장상 | 상장 |

- 전시기간 2026년 5월 23일(토)~5월 27일(수) (예정)
- 전시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 시상일시 2026년 5월 23일(토) 14:00 (예정)
- 시상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 작품반출 출품작은 반출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시상식 후 상장과 함께 발송함.
- 전시기간 2026년 5월 23일(토) ~ 5월 27일(수) 예정
- 기타사항
 - 수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 원본 파일 제출(peg파일, 장변 최소 3,000픽셀 이상) E-mail : sansaesol@hanmail.net(메일 제목은 이름과 작품명 기재 / 미제출시 상권취소)
 - 작품매입비는 세금과 송금수수료 공제 후 지급(농협계좌는 수수료 없음)
 - 출품된 작품은 반출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시상식 후 상장과 함께 발송함.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지적재산과 저작권격권)은 응모자 창작자에게 있음.
 - 출품작의 초상권 등 제반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동일,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 되었을 경우, 상권 취소되며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입회가 유보됨.
 - 주관·주최·후원측에서는 수상작의 영상 및 홍보 자료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 결정에 의함.

■주 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후 원 : 영월군 · 영월문화관광재단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영월FM공동체라디오 · 인터넷신문 영월인

제 16 회 제천 전국사진 촬영대회

일시 : 2026년 4월 18일 (토) 오전 10시 (입회점수 있음)

장소 : 의림지 수변무대



대회 참가자격 : 사진동호인 및 애호가
 대회 장소 : 제천시 의림지 수변무대
 촬영 내용 : 제천의림지 전국사진촬영대회 당일 행사장 내 모델 연출
 대회 참가비 : 1인 30,000원 (출품표 포함, 중식제공)
 대회 신청방법 : 현장접수 및 사진접수

■출품 안내 ■

접수마감일 : 2026년 05월 20일 - 도착분
 작품내용 : 제천전국사진촬영대회 당일 행사장 내 모델 연출 촬영작품
 작품규격 : 작품규격 11x14인치(컬러 및 흑백)



원서 서식파일
 출품수 : 1인 4매 (규격 11x14인치)
 접수처 : (우 27118) 충북 제천시 내제로 75 아르떼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
 연락처 (문의처) : 지부장 010-3454-0102 사무국장 010-2667-2107

출품요령 : 우편접수(사진뒷면에 촬영대회 접수증 복사부착)
 심사일시 : 2026년 5월 23일 예정
 심사방법 : 공개심사
 심사결과발표 : 심사 후 사협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 ▶ 금 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 은 상 2점 : 제천시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 동 상 3점 : 제천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 가 작 5점 : 한국예총 제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 장 려 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지부장 상장
 - ▶ 입 선 (출품수 20%이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지부장 상장
- * 시상금 원천징수세액은 수상자 부담

개전 및 시상일시 : 2026년 6월 25일 오후2시 예정
 시상장소 : 의림지역사박물관 예정
 전시기간 : 2026년 6월25일 ~ 6월 30일(예정)
 전시장소 : 의림지역사박물관 예정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향후10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 동일작품, 유사작, 기표표작으로 판명될 시 상권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반환,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인 7년간 입회 불허함.
-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 ◎ 입선 및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지정된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보낼 이메일 주소 : otterkang@naver.com
- ◎ 상금 원천징수액 세금 및 수수료 발생할 경우 공제후 지급.
-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저작권분쟁,표절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는 응모자 책임으로 함.
-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의 결정에 따른다.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 ■후원 제천시 /제천시의회 /제천예총/(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1회 경기도 사진대전

경기도 사진예술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며, 경기도 사진예술문화 역량 강화와 사진인 문화교류의 확대발전을 기여하는 제30회 경기도 사진대전을 개최합니다. 경기도 사진대전을 통해 발굴한 신진작가의 작품과 다양한 사진작품을 사진애호가 및 대중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진인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품 접수 | 2026. 5. 21(목) 1일간 (10:00~17:00)

- 공모영역 : 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 미풍양속에 유해하지 않은 작품
 ◎ 자유작 ◎ 포트폴리오(단, AI 작업 제외)
- 출품자격
 ◎ 공모전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10에 해당하는 자
 1. 경기도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소속 협회 회원
 3. 경기도 지역의 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4.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자
 ◎ 초대전 : 경기도 사진대전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에 한함.
- 출품규격
 ◎ 자유작 : 16" x 24" 규격으로 인화하여 출품(장정불요). 단, 규격이 다르더라도 한 면이 규격에 맞으면 인정함.
 ※출품작과 동일한 내용의 8" x 10" 인화지 작품을 출품원서와 함께 제출
 ◎ 포트폴리오 : 내용이나 기법에 제한 없음,(AI 기법 작업 제외) 8" x 10" 규격의 작품 9매로 구성하고(규격엄수 : 긴 면이 1m이내), 대지(우드락에 매트처리) 1매에 부착해 출품하여야 하며, 도록제작용 사진을 8" x 10" 크기로 인화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10점 이내 출품시 일반공모전으로 접수 심사한다.)
 ◎ 추천작가, 초대작가 출품작은 16" x 24" (규격 엄수) 인화 후 유리없이 액자를 제작하여 출품하고, 도록제작용 사진을 8" x 10" 크기로 인화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수상작 전시작품 제출
 ◎ 모든 입상작 :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은 24" x 36", 특선은 20" x 30" 규격으로 모두 인화한 후 액자로 제작하여 2026년 7월 6일(월) 10:00까지 전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상을 취소함.
 ◎ 입선작 : 액자는 지회에서 매트지로 제작하여 전시함.
 ◎ 모든 수상작(입상, 입선)은 수상작 발표후 5일 이내에 작품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을 취소함.
- 공모전 출품수 및 출품료 : 1인 4점, 인당 8만원
- 출품원서 : 시험 경기도지회 홈페이지(www.ggpask.com)에서 다운로드
- 작품접수 : 2026년 5월 21일(목) 1일간 (10:00~17:00)
- 접 수 처 : 경기도 인재개발원 체육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64) ※ 장소 문의 : 사무국장 010-3665-2525
- 작품심사 : 2026년 5월 22일(금) 13:00 경기도 인재개발원 체육관 공개심사
- 결과발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www.pask.ne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www.ggpask.com)

- 시상식 및 폐막식 : 2026년 7월 9일(목) 16:00 / 7월 12일(일) 15:00
- 전시일시 : 2026년 7월 7일(화) ~ 7월 12일(일)
- 시상식 및 전시장소 :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1,2,3,4관)
- 작품반출 : 낙선작은 심사종료 후 심사장 및 해당 지부에서 반출하며, 전시작은 본 전시 종료 후 반출함.(전시작 반출 : 7월 12일 15:00~16:00)

시상 내역

- 대 상 (1점) : 경기도지사 상장
- 최우수상 (1점) : 경기도의회 의장 상장
- 우수상 (2점) :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회장 상장
- 특 선 (입선작의 10% 이내, 대상 우수상은 제외) : 경기도지회장 상장
 ※ 포트폴리오 작품은 10점 이상 접수시 특선 1점을 우선 선정함.
- 입 선 (전체 출품수의 20% 이내) : 경기도지회장 상장
- 초대작가상 (3점) : 경기도지회장 상패
- 추천작가상 (1점) : 경기도지회장 상패

● 유의사항

- 기한내에 찾가지 않는 작품(낙선작 포함)의 분실 및 파손 등은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임의 처분함.
- 발표작, 유사작 및 표절 작품으로 판명시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정한 제재 있음.
- 포트폴리오 작품접수시 연작사진 등 포트폴리오 작품 위배 및 접수시 일반 공모로 전환 접수 및 심사
- 참고사항
 · 한국사협 회원 입회점수 부여(대상 7점 / 최우수상·우수상·특선 5점 / 입선 4점)
 · 출품자 전원에게 수상작품집 및 초대작품집을 제작하여 증정함.
 · 개최 공고는 본 공모요강 및 관련 인터넷 게시로 가름함.
 · 경기도사진대전 초대·추천작가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지회 사무국에 2026년 5월 15일(금)까지 접수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 부여함.
 (초대작가 대상자는 추천작가 인준 후 추천작품 5회 출품 및 전시, 추천작가 대상자는 당해 연도 포함 누계로 취득점수 15점을 득한 자)

- 주 최 · 주관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 후 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이 공모전은(이 행사는) 2026년 경기도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합니다.

제33회 서산 전국사진공모전

2026. 5. 1(금) ~ 5. 30(토)
도착분 (입회점수 있음)

2026년 제33회 서산전국사진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의 사진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응·모·내·용]

작품내용 : 창의적이며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작품으로
국내·외 미 발표작

응모자격 : 제한없음

작품규격 : 컬러 및 흑백사진 11" × 14" 에 한함.(장정 및 대지부착 불요)

출 품 수 : 1인 4점 이내

출 품 료 : 1인당 20,000원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6. 5. 1(금) ~ 2025. 5. 30(토) 도착분까지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성명, 전화번호, 작품명, 우편번호, 주소, 기재 요망

접 수 처 : [우:32003] 충남 서산시 정주골 2길 33-8, 3층 한국사협 서산지부

지부장 : 010-9192-0173 / 사무국장 : 010-2505-8853

이메일 : ohys1127@naver.com

[심사 및 시상계획]

심사일시 : 2026. 5. 31(일) 예정

심사발표 : 2026. 6. 1(월) (한국사협 홈페이지 게재)

시상일시 : 2026. 7. 4(토) 14시 서산시문화회관

전시기간 : 2026. 7. 3(금) ~ 7. 5(일) 서산시문화회관 전시실

시·상·내·역

- 금 상 1점 : 서산시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 상 2점 : 서산시의회 의장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 상 3점 : (사)한국예총 서산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가 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서산지부장 상장
-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서산지부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서산지부장 상정총 출품수의 20% 이내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작에 대한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여 주최측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출품자는 작품 출품시 개인정보를 별도의 서명 없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출품함.
-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입선 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자격 유보됨.
- 컴퓨터그래픽 시 디지털 합성사진 및 지나친 색상 조정으로 판명될 경우 상권 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된 초상권 및 명의도용 분쟁 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입상작은 시상식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시상하며, 불참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함.(대리참석 가능)
- 출품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작품집은 출품자 전원에게 발송함.
- 입선 및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3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지정된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ohys1127@naver.com)
- * 이 공모전은 서산시 지방보조사업 일부 지원으로 진행함.

- 주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서산지부
- 후 원 : 서산시 · 서산시의회 · (사)한국예총 서산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24회 고양

전국사진촬영대회

2026. 6. 14(일) 오전10시~오후4시

2026. 7. 11(토) 소인유효

2026년 제24회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의 사진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참·가·요·령

대회일시 : 2026년 6월 14일(일) 오전10시 ~ 오후4시까지

대회장소 : 고양 호수공원(노래하는 분수대) (단, 우천시 실내촬영 진행)

주 차 장 : 고양 호수공원 제주차장

참 가 비 : 1인당 3만원 (중식제공)

참가자격 : 전국 사진 애호가

참가신청 : 당일 현장접수

작품내용 : 행사 당일 모델 및 행사장에서 촬영한 자유작

작품규격 : 컬러 및 흑백사진 11" × 14" (장정불요)

출품요령 : 작품뒷면에 접수증(참가증) 부착 2점이상,
복사가능(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필수 기입요망)

출 품 수 : 1인 2점이상 4점 이내.(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참가증 없을시 4점까지 3만원

접수마감 : 2026년 7월 11일 소인유효

접 수 처 : [우:104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430번길 29-35
백석동 B1호 한국사협 고양지부

연 락 처 : 지부장 010-6236-6358 / 사무국장 010-2287-7675

심사일시 : 2026년 7월 25일(토)

심사장소 : 일산동구청 대강당

심사발표 : 2026년 7월 25일(토)

시상일시 : 2026년 8월 21일(금) 오전11시

전시기간 : 2026년 8월 20일(목) ~ 23일(일)

■ 주 회 · 주 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양지부

시·상·내·역

| 구분 | 시상내역 | |
|-----|-------------|--------------------------|
| | 작품수 | 상 권 |
| 금 상 | 1점 | 고양시장상, 100만원 |
| 은 상 | 2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장상, 각 30만원 |
| 동 상 | 3점 | 고양예총회장상, 각 10만원 |
| 가 작 |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양지부장상, 상장 |
| 장려 |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양지부장상, 상장 |
| 입 선 | 총 출품작 20%이내 |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양지부장상, 상장 |

(*입선은 입상작품 포함 출품작품수의 20% 이내)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입상자는 심사발표 후 10일 이내에 원본 파일 및 원판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 취소 됨.
- 대회 당일 작품이 아니거나 동일한 작품으로 출품해 입상, 입선 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자격 유보됨.(드론 사진촬영 불가)
- 출품작 사용은 본 촬영대회에서만 사용하고 그 외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짐.
- 입상·입선작 사진저작권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고, 주최측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측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반출은 하지 않는다.
- 문의전화 지부장 010-6236-6358 / 사무국장 010-2287-7675
- * 본 공모요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후 원 : 고양예총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2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 개최요강

접수마감 : 2026년 6월 10일 (수) 도착분

인천광역시사진대전(일반공모전, 초대, 추천작가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사진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사협접수있음)

출품요령

- ◆ 출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으로 국내외 미발표작
- ◆ 출품자격 1) 만 18세 이상되는 인천광역시 시민으로서 인천광역시 내에 1년 이상 거주자 및 사협인천지회 소속회원
- ◆ 출품규격 흑백, 컬러 16" x 20" (판넬볼요)에 한함.
- ◆ 출품요령 출품료에 명제,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필히 기재요망
- ◆ 출품료 1인당 100,000원
- ◆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 접수마감 **우편접수 : 2026년 6월 10일 도착분**
(초대, 추천작가도 방문접수와 동일)
방문접수 : 2026년 5월 26일 ~ 6월 10일 17:00 한
(평일에 한함)

◆ 접수처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우)221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
수봉문화회관 2층

◆ 문의전화 032)864-4887 (인천지회),
010-5213-0001 (사협 인천지회)

심사·전시

- ◆ 심사일정 2026년 6월중
- ◆ 심사장소 수봉문화회관 전시실
- ◆ 심사방법 공개심사
- ◆ 심사발표 추후공지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지회 홈페이지에 게재)

- ◆ 시상일시 2026년 6월 27일(토) 14:00
- ◆ 전시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 전시기간 2026년 6월 27(토) - 7월 1일(수)

시상내역

- ◆ 초대작가상 1점 사협 인천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대 상 1점 인천광역시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200만원
- ◆ 최우수상 1점 사협 인천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우수 상 2점 사협 인천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 특 선 사협 인천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수상작품의 10% 이내)
- ◆ 입 선 사협 인천광역시지회장 상장
(출품작품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기타사항

- ♣ 수상자는 심사결과 발표후 7일 이내 (1개월 이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것. 미제출시 수상을 취소함 (사협인천지회회원은 제출치 않음)
- ♣ 타공모전 동일작품등 문제작은 사협규정에 의거 제재하며 초상권책임은 출품자본인에게 있음.
-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 추천 및 초대작가 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년도 까지 제출바람.
- ♣ 낙선작품은 전시기간내 반출하며 찾아가지 않는 작품의 분실, 파손등의 책임을 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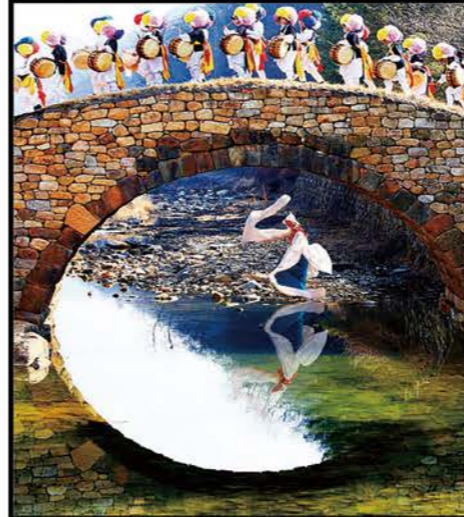
■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 원 : 인천광역시, 예충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일보

The 3rd

제3회 의왕전국사진공모전

마감 - 2026. 5. 18. (월) 도착분

한국사진
작가협회
의왕지부



입회접수
있음



- 출품자격 | 제한없음 (전국민 누구나)
- 참가비 | 1인당 3만원
- 출품수 | 1인당 4점 (핸드폰 사진도 출품가능)
- 작품내용 | 미발표 자유작 및 의왕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
- 작품규격 | 11x14 컬러 및 흑백
- 접수기간 | 2026년 5월 1일 (금) - 5월 18일 (월) 도착분
-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기재, 의왕시 작품은 촬영장소 기재
- 접수처 | 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 - 경기도 의왕시 상직막길 42 (청계동645-4) (우 15500)
지부장 010-6398-9327 / 사무국장 010-3874-6057
- 작품심사 | 2026년 5월 20일 오후 1시 의왕시청대강당
- 심사발표 | 2026년 5월 21일 (예정)
- 작품전시 | 2026년 7월 (예정), 장소 추후공지
- 개전식 | 2026년 7월 (예정), 추후공지



- 금 상 1 점 | 의왕시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 상 2 점 | 계원예술대학총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 상 3 점 | 의왕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20만원
- 가 작 5 점 | 의왕예총회장 상장
- 장려상 5점 | 사)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장 상장 출품작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입상작 중 은상 1점, 동상 1점, 가작 2점, 장려상 2점 의왕시 작품 심사)



- ◎ 입상 및 입선작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고 사용권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 및 의왕시청에 있으며 비영리 목적의 홍보 및 출판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입상, 입선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초상권은 출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 타 공모전 입상작, 유사작, 기발표작으로 판명되는 경우 입상, 입선 취소 및 회원 징계, 비회원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7년간 유보함.
-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원본파일 3,000pix 파일로 제출)
보내는곳 yjung0902@hanmail.net (미제출시 상권취소)
- ◎ 입상자는 시상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함.

2026

Jeju Fire Festival

제주들불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제주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라는 주제로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주시에서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재조명하고 들불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합니다. 사진을 통한 제주들불축제 홍보와 사진인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3(금) ▶ 3. 14(토) 2일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행사장 일원

출품자격 : 전국 사진애호가 및 외국인 등 제한없음

응모 방법

- **작품내용** : 2026년도 제주들불축제 행사를 담은 사진작품(행사사진 이외 접수 불가)
- **작품규격** : 컬러 및 흑백 11"×14" (추후 수상작은 5Mbyte 이상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 **출품수 및 출품료** : 1인 4점 이내 / 1인당 20,000원
-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출품표(작품명,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부착, 제출
- **접수마감** : 2026년 4월 13일(월)(당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처** : (우)63268 제주도 제주시 신산로4길 22-1, 1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064-702-7117)
- **심사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후 1시(제주시청 별관 대회의실)(예정)
- **심사발표** : 2026년 4월 16일(목)(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do.go.kr) 및 개별통보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홈페이지(www.jejudo.go.kr)
- **시상식** : 2026년 5월초 예정

시상 내역

- **금상 1점** : 제주시장 상패 및 상금 150만원
- **은상 2점** : 제주시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동상 3점** : 제주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상장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상장
- **입선** : 출품수 20%이내(입상작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상장

기타 사항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입회 접수 인정, 작품의 초상권은 출품자가 책임져야 함.
- **입상 및 입선자**는 심사 발표 후 5일내 사진파일 제출(이메일 jejudo@jejudo.go.kr)
- 입선 및 입상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고, 제주시와 사협 제주도지회에서 전시, 복제, 배포, 공중 송신, 아카이빙, 도서제작, 온라인게시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공모전의 낙선작 및 작품집 배부 등은 사협 제주도지회로 문의 바람.
- 합성사진은 일체 접수가 불가하며, 심사 이후라도 합성작품으로 판명될 시 상권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사진촬영대회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입상권**에서는 **홍보에 유용한 사진** 위주로 선별(인물위주 작품은 가급적 배제)
- **심사위원들의 심사 협의에 따라 해당 상(賞)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촬영대회 관련문의 : 지회장 010-3691-6286

2026 제52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대전

The 52nd Photography Exhibition JEJU 2026

접수기간
2026. 4/25 토
4/26 일 (2일간)

제주 사진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제주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작품 공모 및 전시회 개최를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출품자격

- ① 제주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②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
- ③ 제주도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2. 작품내용 / 출품규격

- 출품제한 : 국내·외에 이미 발표, 전시된 작품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작품
- 공모부문 : 11 x 14인치 인화사진, 1인 4점/ 출품료 없음
- 추천, 초대작 부문 : 11 x 14인치 인화사진, 1인 1점/ 출품료 없음

3. 출품절차

- 원서배부 : 2026년 3월 20일 ~ 4월 26일
(사협제주도지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출력)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5일(토) ~ 4월 26일(일)(2일간)
- 작품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광양빌딩 5층
제52회 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 접수처(제주예총 회의실)

4. 심사 및 발표

- 심사일자 : 2026년 4월 28일(화)(공개심사) / 장소 : 추후 발표
- 심사발표 : 2026년 4월 29일(수)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도지회 홈페이지(www.jejudo.go.kr)

5. 시상내용

- 1. 대상 : 1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패 및 500만원-작품매입비)
- 2. 최우수상 : 1점 (제주도사진대전 대회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3. 우수상 : 2점 (제주도사진대전 대회장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4. 특선 : 수상작품수의 10% 이내
(제주도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5. 입선 : 출품 작품수의 20%
(입상작 포함, 제주도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 6. 초대작가상 : 3점 (제주도사진대전 대회장 상패 및 상금 50만원)
- 7. 추천작가상 : 1점 (제주도사진대전 대회장 상패 및 상금 50만원)

6. 시상 및 전시

- 시상일시 : 2026년 5월 23일(토) 오후 5시 전시회 오픈식과 동시에 개최
- ※ 특선 이상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 ※ 수상 결정 후 취소 시 차년도부터 출품할 수 없음

- 전시기간 : 2026년 5월 23일(토) ~ 5월 28일(목)
- 전시장소 : 제주도문예회관 제1, 2전시실

7. 작품반출

- 낙선작품은 심사종료 후 심사장 및 제주도지회 사무실, 또는 전시 장소에서 반출하며, 전시작품은 본 전시종료 후 전시장에서 일괄 반출(미 반출 작품은 모두 임의 처분함)

8. 유의사항

- 수상작 및 추천·초대작은 심사발표후 5일 이내 반드시 사진파일(장변 4,000픽셀 이상)을 제출해야 함.
- 파일 미제출시 상권 및 전시참여 취소 (제출처 : 이메일 jejudo@jejudo.go.kr)
- 사진 인화 및 액자제작은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제작
- 기 발표작 또는 유사작으로 판명 시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정한 문체작 제재를 적용함
- 수상작은 초상권,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시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사진 대전의 업무 방해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입선 및 입상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협 제주도지회에서 전시, 복제, 배포, 공중 송신, 아카이빙, 도서제작, 온라인게시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9. 참고사항

- 상명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에 대해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부여 (대상 7점, 최우수·우수·특선 5점, 입선 4점)
- 제주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점수 부여(대상 5점, 최우수·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하며, 동일 년도에 두 작품 이상 입상 또는 입선한 경우는 상위 한 작품만 인정)

10.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홈페이지 : www.jejudo.go.kr
- 문의처(사무국)
대회장 : 010-3691-6286 사무처 : 064-702-7117
사무국장 : 010-3525-4166

60년의 전통과 권위, 제60회 울산전국사진촬영대회
고살풀이춤 등 수준 높은 모델들과 함께 정통 사진의 가치를
담아보세요. 전국 사진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모델 : 고살풀이춤 퍼포먼스, 처용탈 제작, 울산학춤, 발레, 나룻배 시연)

제 60회 울산 전국 사진 촬영대회

- 일시 :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개회식) ~ 오후 4시 (우천불구)
- 장소 :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메인무대)
주차장 및 무대위치 : 태화강국가정원 부설주차장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468) 주차 후 십리대밭교 건너서 300m 지점

참가료 참가자격 : 전국 사진동호인 • 참가신청 : (사)한국사협 울산지회 및 당일 행사장
참가비 : 1인당 30,000원 (중식 제공, 기념품 지급) • 참가비 입금계좌 : 301-0330-4676-01 (농협은행 사협울산지회)

1000이 작품규격 : 11" x 14" (장정 불요, 칼라 및 흑백), 컴퓨터 합성 불가 • 출품수 : 4매 이내
출 품 처 : 우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39번길 25 (2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반드시 화제, 주소, 성명, 휴대폰번호,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 (출품표 부착, 복사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6월 17일(수) 도착분

심사 및 전시 심사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13:00 • 심사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지하1층 아트홀
심사발표 : 2026년 6월 22일(월) (협회 및 지회 홈페이지(http://www.uspic.net) 게재)
전시기간(예정) : 2026년 8월 12일(수) ~ 8월 17일(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장)
시상일시(예정) : 2026년 8월 12일(수) 18:30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시상 금상 (1점) : (사)한국사협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 : (사)한국예총 울산연합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사협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5만원 • 가작 (5점), 장려 (5점) : (사)한국사협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입선 (출품작수의 20% 이내 - 입상작 포함)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문의 사무실 : 052-275-3001, 지회장 : 010-5359-8135, 사무국장 : 010-3288-9060

- ※ 심사결과 발표 후 상권 취소 요구 할 수 없음.
-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서는 수상작품에 한하여 홍보나 공익적 사업에 향후 7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출판에 사용할 수 있음.
-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수상 작품은 긴변이 3,000픽셀 이상의 원본파일을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제출요망, Only 웹하드(Only.webhard.co.kr : 아이디 uspic, 비번 3001)



■ 나룻배 시연 (06:00~08:00)
(장소 : 태화강국가정원 셋강)
■ 촬영대회 출품 가능



(사)한국 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있음

- ◆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 후원 : 울산광역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본 행사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은 행사임.

제 34회 울산 전국 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2026년 6월 2일(화) 도착분
(시험 입회접수 인정)

사진인구 저변 확대 및 참신하고 유능한 사진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사진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출 품

- 출품자격 : 제한없음 • 출 품 수 : 1인 4점 이내
- 출 품 료 : 1인 20,000원 반송료 포함(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농협 : 301-0330-4689-51 사협 울산지회)
- 작품규격 : 칼라 및 흑백 사진 11" x 14" (장정불요)
- 작품내용 : 자유작으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며 국내외 미 발표작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성명, 작품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휴대폰)를 정확히 명기할 것.
- 접수기간 : 2026년 4월 1일(수) ~ 6월 2일(화) 도착분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39번길 25, 2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우:44701 ☎ 052) 275-3001, FAX: 052) 275-3103



심 사

- 심사일시 : 2026년 6월 5일(금) 13:00
- 심사방법 : 공개심사(울산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 아트홀)
- 심사발표 : 2026년 6월 8일(월) (협회 및 울산지회 홈페이지-http://www.uspic.net)

시 상

- 일 시(예정) : 2026년 8월 12일(수) 18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 전시기간(예정) : 2026년 8월 12일(수) ~ 8월 17일(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제3전시장
- 시상내역
 - ▶ 금 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은 상 2점 :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 동 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 가 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 ▶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 ▶ 입 선 (출품작의 20% 내외 - 입상작 포함)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기 타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서는 수상작품에 한하여 홍보나 공익적사업에 향후 7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출판에 사용할 수 있음.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동일작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시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음.
- 수상 작품은 원본파일을 또는 디지털 이미지 작품은 긴변이 3,000픽셀 이상의 원본 파일을 2026년 6월 15일까지 제출 요망. Only 웹하드(Only.webhard.co.kr : 아이디 uspic 비번 3001) 미제출시 상권 취소됨,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가 책임진다.



- ◆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 후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본 행사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은 행사임.

제 48회 순천

전국 사진공모전 요강

접수 : 2026년 5월 8일(금) 소인유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

- 작품내용** 1. 순수예술 창작사진으로 미풍양속에 유해하지 않는 국내외 미공개 자유작품
2. 순천시 관내를 소재로 한 관광명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사진작품
- 출품자격** 제한없음
- 작품규격** 컬러사진 및 흑백사진 11x14인치
- 출품요령** 마운트 및 대지는 하지 말것이며 제목,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제출
(작품내용 2항에 해당되는 순천시 관내 작품은 촬영장소 기록)
- 출 품 료** 1인당 20,000원
-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 접 수 처** 우57957 전남 순천시 서문로 7-2 (비타민센터 3층) 사협순천지부
- 접수마감** 2026년 5월 8일(금) 소인유효
- 작품심사** 2026년 5월 16일(토) 순천문화건강센터 전시장
- 심사발표** 2026년 5월 18일(월) 사협본부 및 순천지부 홈페이지 www.scpask.net
- 전시기간** 2026년 6월 30일(화) ~ 7월 4일(토) (5일간)
- 전시장소** 순천문화건강센터 전시장
- 시상일시** 2026년 7월 4일(토) 오후3시 순천문화건강센터 전시장
- 시상내용** 금상 : 1점 상금 100만원 순천시장 상장 은상 : 2점 상금 각 50만원 순천시의회장 상장
동상 : 3점 상금 각 20만원 순천예총회장 상장 가작 : 5점 순천지부장 상장
장려 : 5점 순천지부장 상장
입선 : 입상작 포함한 출품작의 20% 이내, 순천지부장 상장
(순천시 관내작품 별도 선별, 각 10만원씩 원고료 지급)
- 유의사항** 1. 입선 및 입상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선정된 작품은 순천시와 사협 순천지부에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2. 시상금 및 원고료가 지급될 작품은, 원판상태가 확대인화에 적합한 필름 및 파일을 주관처가
요구한 날짜와 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3. 위의 2번 사항에 준하며, 장려이상 선정된 자는 시상식에 참석, 현장에서 상금 수령 소속을
하여야 시상금을 지급 함.
4.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선정될 경우, 상권 및 시상금은 취소 및 반환하고,
회원은 징계하며, 비회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자격이 7년간 유보 됨.
5. 선정된 작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낙선작은 전시 종료후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반송함.(국내)

문의전화 : 지부장 김동욱 010-2626-3653 | 사무국장 신동일 010-4632-1574



"2026년도 순천시 문화예술과 보조금 지원사업 후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지부

후원 : 순천시, 순천시의회, 순천예총,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12회

파주평화 전국사진공모전

(파주 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 우대)

마감
2026년
5월 30일

응모요령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은 국내외 미발표 자유 작품
- 출품규격 : 11 X 14 칼라 및 흑백사진(장정불요)
- 출 품 료 : 1인당(4점이내) 2만원
- 송 금 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파주지부(농협 : 351-1222-3499-93)
- 출품마감 : **2026년 5월 30일**
- 출품방법 : 뒷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정확히 기재
- 출품장소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2층(우 : 10894)
지부장 : 010-8725-4270, 사무국장 : 010-5312-2973

행사일정

- 심사일시 : **2026. 06. 13.(토) 오후 13:00**
- 심사장소 :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
- 심사발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http://www.pask.net)
파주지부 홈페이지(http://cafe.daum.net.paskpi)
- 시 상 식 : **2026. 07. 11.(토)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 오후14시**
- 작품반출 : 낙선작은 반출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시상식 후 30일 이내 발송

시상내역

- 금 상 1점 : 파주시장 상장 및 상패
- 은 상 2점 : 파주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패
- 동 상 3점 : 파주예총회장 상장 및 상패
- 가 작 5점 : 파주문화원장 상장 및 상패
-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장 상장 및 상패
- 특별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장 상장 및 상패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장 상장
(출품작의 20%이내 입상작포함)

기타사항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가 인정되며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고 사용권은
주최 주관측과 파주시장(관광사진)에 있으며 도서출판 등 공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유사작이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협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자격 유보
- 이중접수는 절대불가하며 발견시 심사에서 배제되며 출품료는 반환하지 않음 그리고 출품작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

주최 · 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

후 원 : 파주시, 파주시 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예총, (주)브이티 지 엠 피



계룡 전국사진공모전

마감일 : 2026년 4월 30일
(소인유효 · 입회점수인정)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
후원 계룡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

출품자격 제한없음(전국사진애호가)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창작, 국내외 미 발표 자유작
작품규격 칼라 및 흑백 11"x14"(장정불요)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출 품 료 1인당 2만원
접 수 처 우)32829 충남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18-19(예충계룡지회 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

문의처 지부장 010-4188-0120, 부지부장 010-5081-7191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화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명기
심사일시 2026년 5월 9일(예정)
심사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2층) 공개심사
심사결과발표 2026년 5월 10일(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시상내역

- ◆ 금상 1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은상 2점-계룡시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 동상 3점-계룡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 가작 5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장 상장
- ◆ 장려 5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장 상장
- ◆ 입선 출품작 수의 20% 이내(입상작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장 상장
전시개막 및 기간 **2026년 5월 15일 ~ 5월 17일(3일간 예정)**
전시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층 전시실**
작품반출 작품집, 낙선작은 시상 후 개별 발송

기타(유의)사항

- ◆ 입상(선)작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 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작품의 초상권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 동일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협 회원은 징계 조치
비회원은 입회 자격이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보됨
- ◆ 입상(선)작은 7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kyhjcs@hanmail.net로 제출

2026 제40회 춘향제 행사 및 모델

남원전국사진 촬영대회

사진예술을 통하여 세계속의 전국사진가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사진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작의욕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전국사진촬영대회에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방법

대회일시 2026년 05월 03일 오전 10시 **접수정**(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160-2)
내 용 ① 춘향제 행사기간 중 촬영한 작품 ② 행사 당일 모델로 촬영한 작품
작품규격 11x14 칼라 및 흑백
출 품 료 1인당 3만원 (중식제공 및 작품집 증정)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 출품표에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꼭 기입할것)
접 수 처 (55775) 전북 남원시 남문로 446. 사협남원지부
(지부장) 010-6530-2609, (사무국장) 010-6600-6306
출품마감 2026년 06월 2일 18:00 (당일소인 유효)

심사 및 시상

심사발표 2026년 06월 10일 중 사협 홈페이지 및 남원지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hoto-nw>
시 상 식 추후발표

시상 내역

금 상 1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상금 1,000,000원)
은 상 2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상금 각 500,000원)
동 상 3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상금 각 300,000원)
가 작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장려상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입 선 - 출품수의 20%이내. 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 남원지부장상

기타 사항

- 1) 동일 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협회원은 징계,비회원은 7년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사협 입회가 유보됨.
- 2)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초상권 및 작품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 3)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상장과 입상권만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발송함.
- 4) 수상작품의 파일은 발표 후 7일 이내 V2609@hanmail.net 제출바람.



접수마감 2026년 6월 11일(목) 도착분에 한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에서는 사진예술의 진흥과 사진 동호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제71회 진주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전국의 뜻 있는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공모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방법

작품내용 : 국내·외 미 발표작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작품(컬러, 흑백)
출품자격 : 제한없음
출품수 : 1인 4점
출품규격 : 11"×14"에 한함(장정불요)
출품료 : 1인당 20,000원
출품방법 : 뒷면에 화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부착
출품마감 : 2026년 6월 11일(목) 도착분에 한함
출품장소 : (우)52776, 경남 진주시 상대로 69번길 9(상대동) 가온공인중개사사무소
 지부장 : 010-4924-5894, 사무국장 : 010-3859-4967

시상 내역

금상 :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동상 :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장상 및 상금 각 10만원
작가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장상
장려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장상
입선 : 출품수의 20% 내 (입상작 포함) 진주지부장상

심사 및 전시

심사일시 : 2026년 6월 13(토), 13:00 예정
심사장소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방법 : 공개심사
심사발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진주지부 다음카페(<http://cafe.daum.net/jinjudask>)
전시 및 시상 : 미정 (추후통보)

유의 사항

- 작품반출 : 낙선작은 반출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개별 발송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주최·주관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도서출판 등을 할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동일 유사작이 입상, 입선 될 경우 입상취소와 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 자격이 유보됨.
- 입상, 입선은 원본파일을 7일 이내 제출해야 함.(제출 메일 주소 : huni4967@naver.com)
-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함.(계좌이체 시 공제 후 지급)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진다.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26회 남양주 전국 꽃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2026.5.29(금) 도착분

응모요령

응모자격 : 제한없음
작품내용 : 자유작 / 꽃이 들어간 국내외 모든작품(미발표작에 한함)
작품규격 : 11"×14" 컬러 및 흑백
출품료 : 인당 30,000원 / 2점 이상 4점 이내
접수처 : 12257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70-1(한양사진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
 지부장 남윤세 : 010-7227-5672
 사무국장 이미자 : 010-9967-2917

접수마감 2026년 5월 29일(금) 도착분까지
심사일시 2026년 6월 6일(토) 13:00
심사장소 남양주 문화원 강당
심사발표 2026년 6월 8일(월)
 (사)한국사협홈페이지 & 남양주지부카페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namyangjuphoto>
개전 및 시상일시 2026.7.11(토) 오후 3시
시상장소 리멤버 1910(이석영 광장) 지하 전시실(남양주시 경춘로 946)
전시기간 2026.7.11(토) - 7.17(금) (오후철수)
전시장소 리멤버 1910(이석영 광장) 지하 전시실(남양주시 경춘로 946)

시상내역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은상 2점 남양주문화원 원장 상장
동상 3점 (사)한국예총 남양주지회장 상장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장 상장
장려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장 상장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장 상장

기타사항

- ◆ 입상, 입선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인정함 (입상, 1인 1작품으로 선정함)
-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협회 또는 지회, 지부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 입상작품의 원판필름 파일(긴 변이 3000픽셀 이상)을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이메일 : yunse5672@hanmail.net)
- ◆ 동일 작품 및 유사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는 물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자격이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유보됨
-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반송함
- ◆ 작품 뒷면에 꽃이름, 성명, 우편번호, 주소, 촬영장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꽃사진 공모전에 출품하시는 분은 출품표 양식을 참고하시어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게 있으며,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 한국사진작가협회 문제작, 심의규정 및 본 요강에 정한 사유에 의거 상권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의적 요구에 의한 상권 취소는 불가함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문화원, (사)한국예총 남양주지회

제35회

보령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 2026. 05. 22 (금) 도착분 (시험 입회접수 있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에서는 사진예술의 진흥과 사진동호인의 창작의욕을 높이며 사진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로 제35회 보령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전국의 뜻 있는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작품
 - ◆ 작품규격 : 11"×14" 칼라 및 흑백 (장정불요)
 - ◆ 출품료 : 1인당 2만원
 - ◆ 출품수 : 1인 4점 이내
 -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필히 기재
 - ◆ 접수마감 : 2026년 05월 22일(금) (도착분)
 - ◆ 접수처 : 우)33481 충남 보령시 송정2길 8-12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 ☎ 010-3462-8233
 - ◆ 심사 및 발표 : 심사, 2026년 06월 01일(월) 발표, 06월 03일(수) 발표 예정
한국사협 홈페이지 www.pask.net 공모전 입상자 명단란에 공시
 - ◆ 시상식 : 2026년 07월 04일(토) 보령문화의 전당 (예정)
 - ◆ 전시기간 : 2026년 07월 03일(금) ~ 07월 05일(일) 보령문화의 전당
 - ◆ 시상내역 :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 은상 2점 : 보령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0,000원
 -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보령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0,000원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장 상장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장 상장
 - 입 선 : 출품작품의 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장 상장
 - ◆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
 -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향후 10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작품은 5일 이내에 원판필름 및 원본 파일 주최 측에 제출(미제출 상권 취소)
 - 입상, 입선작이 초상권 등으로 법적문제 발생될 경우 출품자가 책임져야 하고 동일작,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은 취소되며 한국사협 회원은 징계 조치, 비회원은 향후 7년 동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됨
 - 출품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입상자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 ※ 이 공모전은 보령시 지방보조사업 지원으로 진행함.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

후원 : 보령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보령지회

광주 사진 강좌

일시 5.30.(토)
오후 2시~6시

제75회

광주신록 전국사진 촬영대회

촬영대회일시 / 2026. 4. 19. (일)

- 촬영장소 : 광주시립미술관 야외공연장 일원
- 참가자격 : 전국 사진 애호가
- 참가비 : 1인 3만원 (중식 제공)
- 신청방법 : 당일 현장 접수 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작품내용 : 대회 당일 모델 중심으로 촬영한 작품
- 작품규격 : 11 x 14인치
- 출품수 : 4점
- 접수마감 : 2026년 5월 15일(금) 도착분
-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20, C동 3층(농성동, 광주예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연락처 : 사무실 : 062) 228-4774, 사무국장 : 010-3641-0114
- 출품요령 : 접수증을 작품 뒷면에 부착하고 작품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할 것
- 심사일시 : 2026년 5월 21일(목) (예정)
- 심사장소 : 광주예총 1층 백련갤러리
- 심사결과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홈페이지 발표(예정)
(광주사협 <http://www.kjphoto.or.kr> 및 한국사협 <http://www.pask.net>)
- 시상내역 :
 - 금 상 1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 상 2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 상 3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가 작 5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지회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지회장 상장(총 출품작의 20% 내외 선정-입상작 포함)
- 전시기간 : 2026년 6월 19일(금) ~ 6월 25일(목) (예정)
- 시상식 : 2026년 6월 19일(금) 오후 2시 (예정)
- 전시장소 : 광주예총 1층 전시실 백련갤러리
- 작품반출 : 접수된 작품 일체 반환 하지 않고, 시상식 후 도록과 상장은 발송함.
광주 시내 거주자는 도록과 상장을 직접 수령 요망.

기타(유의) 사항

1. 입상 및 입선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로 인정 함.
2. 수상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 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할 수 있음.
3. 입상자는 수상 작품 파일을 발표 후 7일 이내 kjp4774@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 취소)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5회

구미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6년 05월 21일(목) - 도착분(입회접수 있음)

공모 요강

- 출 품 자 격 대한민국 사진인 누구나
- 출 품 료 1인 2만원
- 작 품 규 격 11" x 14" (테두리 없는 사진)
- 원서서식파일 다운로드 제35회 구미전국 사진공모전 출품표.hwp
- 출 품 수 1인 4점
- 접 수 처 39305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218 (구미예총 1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
- 문 의 처 (지부장) 010-7788-4282 / (부지부장) 010-3503-3981 / (사무국장) 010-3805-1678
- 출 품 요 령 작품 뒷면 작품명, 주소(우편번호 필히 기재),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 출품
- 심 사 일 시 2025년 5월 23일(일) 13:00
- 심 사 장 소 새마을 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
- 심 사 방 법 공개심사
- 심사결과발표 심사 후 사협 홈페이지 게재

시상 내역




- 금 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및 시상금 100만원
- 은 상 (2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및 시상금 각 30만원
- 동 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및 시상금 각 20만원
- 가 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 장 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 입 선 (출품작 수의 20%이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시상식 & 전시

- 개전및시상일시 미정 (추후 통보)
- 시 상 장 소 미정 (추후 통보)
- 전 시 기 간 미정 (추후 통보)
- 전 시 장 소 구미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 & 새마을테마공원 3층 전시관 중 택일
- 작 품 반 출 접수된 출품작은 일체 반출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개별 발송

유의 사항

- 입상 및 입선 작품은 사협 입회접수 인정
- 입상 및 입선 작품은 심사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출력파일 (해상도300dpi 3000pixels 이상의 jpg 파일로 원본 제출 (gmpask@daum.net))
-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동일작 및 유사작품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도서출판 등을 할 수 있음

- 주최  **살림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
- 주관  **살림 한국사진작가협회**
- 후원  **살림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 500



- 정품무한잉크
- 4x6 2,100장 출력가능 (업손자료(L8050, L18050))
- Wifi
-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업손자료(L8050, L18050))

| 용도 | 모델명 | 최대출력크기 | 정품무한잉크 | 협회 회원 특가 | 조건 |
|--------|--------|---------------|---------|----------|------------------------|
| 공모전용 | L18050 | ~ A3w(13inch) | 6색 70ml | 495,000 | 용지 5만원 할계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
| 개인용 | L8050 | ~ A4w(8inch) | | 345,000 | |
| A3 복합기 | L8180 | ~ A3w(13inch) | 6색 흑백특화 | 609,000 | -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 | | | |
|---|---|--|---|
| 포토프린터&정품잉크 Canon EPSON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 원목액자 Natural, Brown 11R=6,600원 | 사진용지 Canon EPSON SINJI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 축제·행사 장비대여 1분 출력 촬영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
|---|---|--|---|

제22회 장 뜰 들노래

전국사진 촬영대회

중부 내륙의 중심지인 증평군에서 증평의 관광명소를
대외에 알리면서 증평장뜰들노래전국사진촬영대회를 하고자 하오니
사진애호가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촬영대회** 2026년 6월 13일(토)~14일(일)
- 행사일시** 2026년 6월 14일(일) 10:00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일대(둔덕리)
- 참가비** 30,000원(중식제공)
- 작품내용** 모찌기, 모심기, 들나가기, 새참나르기, 화평기원제, 감자캐기, 물고기잡기, 증평 9경 관광지 등
- 작품규격** 11X14 컬러 및 흑백(4점 이내)
- 접수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번지 문화센터내 증평예총 043)835-3970, 836-7892
- 접수마감** 2026년 7월 2일 도착분까지
- 심사발표** 7월 5일 예정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 www.paskjp.net)
- 시상내역**
 - 금 상 1점 증평군수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특별상 2점 증평군의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축제 1점, 관광 1점
 - 은 상 2점 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동 상 3점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장 상장 및
벤로 맘모스 TMTH44C 카본삼각대 54만원 상당
 - 가 작 5점 장뜰들노래 추진위원회장 상장 및
벤로 ND1000 자석필터 12만원 상당
 - 장 려 5점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장 상장
 - 입 선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장 상장 | 입선작은 총 출품수의 20%이내

기타사항

- 입선, 입상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및 입선자는 작품 파일을 jppask@naver.com 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상장과 입상권만 작품집 제작하여 발송
- 동일작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 자격 유보

문의 사무국장 010-8255-8219 · 지부장 010-5469-9567

